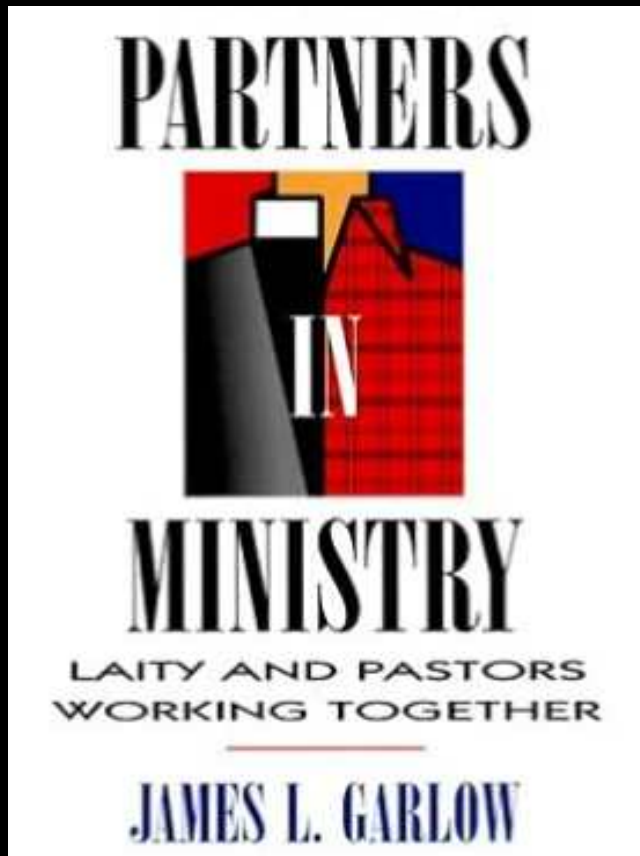


이 책의 개념이야말로 목회를 위한 교회의 활동에 열쇠가 된다.”
캘리포니아, The Church on the Way, 담임목사 잭 헤이폴드



목회에서 동역자

서병채역

[추천의 글]

“짐 갈로우의 작품은 시기적으로 알맞다. 이런 부흥적인 위기에 의식이 있고, 예민한 지도자는 성도의 온 몸을 세우고 준비시키는 방법들을 찾게 된다. 기도하고 성령께 마음을 여는 것이 교회를 깨우는데 열쇠가 될 터인데 이 책의 개념이야말로 목회를 위한 교회의 활동에 열쇠가 된다.”

캘리포니아, The Church on the Way, 담임목사 잭 헤이폴드

“이 책이야말로 교회성도들을 위해 내가 보아온 가장 읽기 쉽고 가장 도움이 되는 지침서들중의 하나이다. 이 책에서, 갈로우 박사는 약간 신학적인 방법에서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하였지만,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다루고 있다. 그의 주제가 교회에 대한 성서적인 기반을 다루거나 또는 그것의 역사 또는 그것의 목회적인 기능들을 다루든지 간에, 그는 전염적인 열심과 영감적인 느낌을 페이지마다 붙여넣고 있다. 분명한 예화들은 독자들의 흥미를 계속 고조시키는데 유익하고 있다. 훈련으로부터 봉사하고, 은사들을 나누어주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리더십 훈련의 강조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안에서 모범적인 헌신자가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진심으로 추천한다.”

플로리다, 코랄리지 장로교회, 담임목사 제임스 케네디 박사

“이 책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해답이다.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요구되지만, 반면에 배우는 것은 욕망을 요구한다. 지성적인 삶의 쌍둥이 직업(점유)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짐의 가르침은 근본적이고 또 명령적이다.”

텍사스, 기독교남성 네트워크 창시자 및 총재, 에드윈루이스 콜

“목적이 인도하는 교회(a purpose-driven church)가 되려면, 당신은 목회를 위해 모든 성도를 움직여야(mobilize) 한다. 짐 갈로우의 실제적인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목표로 움직이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청중을 군인으로 바꾸어놓는 성서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세들백교회, 담임목사 릭웨렌 박사

“종교개혁은 모든 믿는자들의 제사장직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움직이고 준비시키기(mobilizing and equipping)위한

존 위슬리의 순수성은 그 교리를 살아있게 하였다. 갱신의 힘(force)은 아직도 세계주위에 반향들을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는(ensuing awakening) 행동을 시작했다. 짐 갈로우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할 사람은 없다.”

일리노이스, 빌리그래함 전도학교, 교장 로버트 이 콜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침투적이고 능력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희망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로 하여금 비전을 던지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business)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대 사명에 열정을 가지고 그분이 맡긴 임무를 성취하려는 마음과 손이 하나가 되는 목사와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실제적이고 신실하기를(real and sincere) 보기 원한다면 가능한 것이다. 이 책, [목회에서 동역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첫발을 내디디게 할 것이다.”

목회연구협회 부총재, 에취 비 런던.

“내 견해로, 미래에 있어 가장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은 목회를 실지로 평신도들에게 주는 교회들이 될 것이다. 그의 책에서 짐 갈로우는 이것이 교회에서 성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목회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려는 교회들을 돕는데에 우수한 자료이다.”

알라바마 몽고메리, 프레즈감리교회, 담임목사 존 에드마티슨

“매년마다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평신도목회’를 가르치는 것은 나의 특권이다. 짐 갈로우의 책은 이런 살아있는 주제에 대해 어떤 다른 책보다도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효과적인 목회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독서’이다. INJOY 협회 창시자, 짐 맥스웰

“성직주의(clericalism) 시대는 끝났다는 것에 대해 모든 목사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들 자신이 단지 교회의 모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그런고 하니 그들은 필요한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짐 갈로우는 그것을 하는데, 그리고

나는 평신도를 목회의 현장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돕는 데에 이 책보다도 더 나은 책은 못 봤다. 이 책은 개개인으로서 그들을 위해 놀랍고 성취시킬 것이며 교회에 대해 새로운 건강과 활력을 가져올 것이다.”

캘리포니아 파사디나, 플러신학교, 피터 와그너 교수

“만약 모든 교회가 짐 갈로우의 책의 아주 단순한 진리를 소유한다면-모든 크리스찬은 목회자이지 단지 평신도가 아니라는 것-미국의 교회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짐의 책은 실제적이며, 많은 예증을 담고 있어서 이런 점을 충분히 입증해준다. 그는 또한 존 웨슬 리가 평신도를 훈련시킬 때 기초로 한 네가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부름받음, 은사받음, 훈련받음, 그리고 목회로 파송.”

플로리다, 스트랭커뮤니케이션, 총재 및 CEO 스테반 스트랭

“이 책은 모든 크리스찬이 즐겨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짐갈로우 박사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웨슬레의 철학에서 풍성한 이 책은 읽기에 즐겁고-그리고 아주 영감적이다. 우리는 같은 책임을 나누는 참으로 ‘목회에서 동역자’들이다. 이 책은 우리로하여금 함께일하도록 돕는다.”

뉴저지, 드류대학교, 총장 토마스 H. 켄

"짐갈로우 박사는 평신도목회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것을 가르친다....그리고 그것을 설교한다.....그리고 그 자신의 삶속에 그것을 예증한다. 나는 그를 30여년간 알고 있는데, 그는 그런 주장에 대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디자인, 즉 믿는 사람들은 소위 교회라고 부르는 이런 구속적인 사회속에서 함께 나누는 것, 즉 우리는 모두 상호목회에 포함되어 있다에 대해 더 이상 분명치 않을 수도 있다. 이 책은 평신도와 목사가 그들의 은사와 기회들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섞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계획을 완전하게 제시한다. 이 책은 상당한 연구 안내와 깊은 전략 그 이상인데.....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그(His)의 마음으로 들어올려 준다. 다른 책들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이상의 단계이다.....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해준다.“

오레곤, 조지팍스대학교, 데릭 존슨 교수

“교회의 첫째 이슈는 평신도목회이다. 짐갈로우는 어떻게 그런 목회가 준비되고(equipped) 풀어지는지(released)에 대한 아주 분명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이 책은 목사와 평신도에게 있어서 ‘필독서’이다.”

켄터키, 애즈베리신학교, 총장 멕시 던넬 박사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움직이는 것(training and mobilizing)에 앞서가는 것은 없다.....짐 갈로우는 그것을 이 책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 워싱턴, 크리스찬교회, 담임목사 밥 모어헤드

“잘 연구되고, 성서적인 논문에서 저자는 분리된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 갭을 메꾸어 주고 그리고 아주 확신적인 방법에서 그렇게 한다.”

캘리포니아, 페페다인 대학교, 존 존슨 교수

“목회가 함께 나누어 질 때 그리고 함께 나누는 곳에서 교회는 번영하고, 목회가 엘리트 직업적인 목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시행될 때에 교회는 죽는다. 오늘날 우리 세계속에서 예리한 교회들은 짐갈로우의 역작 [목회에서 동역자] 의 진리를 재발견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또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목회에 사용하기 시작하도록 돕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친구 짐 갈로우가 교회에게 주는 이런 특별한 선물보다도 더 목사와 평신도에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책은 없다.”

켄터키, 애즈베리신학교, 학장 데일 켈로웨이박사

“교회가 영적이고 자연적인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은 목사, 스태프, 그리고 회중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그의 제자들이 필요했다. 짐갈로우의 이 책은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His Word)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가슴속에서 당신에게 준 비전에 도달하는 데에 도와줄 것이다.”

오클라호마, 그레이스 펠로십, 담임목사 밥 야디안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세례에서 자라 나온 공통적 소명인 모든 사람들의 일(work)로서 사역에 대한 갱신된 강조를 보고 있다. 짐 갈로우의 작품은 신약성서 안에 있는 교회와 존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의 특징에 본질이었던 것의 재발견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것은 이런 공유한 일에 대한 성직자와 평신도사이에 강한 동역자의식(partnership)을 요구하며 교회전체로 하여금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요청을 다시 주장하도록 초청한다.”

테네시스, 미국감리교본부, 존 하니스

“책 한권이 사람의 삶을 정말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히 ”예“이다. 나는 평신도이고, 지난 25년간 사역에서 평신도를 훈련시켜왔다. 이 책은 평신도목회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책이다.”

테네시스, 하나님의교회 평신도목회사무총장, 레오날드 C. 알버트

“짐 갈로우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의 사역에서 수동적 관중으로부터 능동적 참여자로 움직이도록 설득력있게 도전하다. 이 책은 평신도목회에 대한 성서적 기초와 역사적이 흐름을 사려 깊고 정확하게 발굴하고 있다. 일화, 단순한 도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듯한 예화들의 합성은 이 책을 읽도록 매력을 주고 그것의 원리를 쉽게 기억하고 적용토록 해준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은사를 확인하고, 계발하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평신도와, 그들의 성도들을 훈련시키려는(to equip) 목사들에게 가치가 있을 것이다. 평신도목회에 대해 강조함으로서 그것은 담임목사의 역할을 감축하기 보다 그것을 더 높여준다. 독자들은 평신도목회를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토론하거나 또는 도움이 되는 길잡이를 제공해주는것으로서 이 책을 갖고 싶어할 것이다.”

뉴욕, 허튼대학총장, 다니엘 챔버레인

“역사적으로 감리교주의는, 다른 교단적인 운동과 함께 평신도를 활용함에 있어 강조하며 미국에서 급성장하였다. 이 책은 목회에 임하는 평신도를 위해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거의 신비적이다. 이 자료는 사람들을 위한 웨슬리의 열정과 평생 사역자들을 구비시키려는 그의 바램에서

나온 바꿀 수 있는(transferable) 도구를 독자들에게 준다.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웨슬리의 방법을 개인적인 은사들에 유용하도록 적용하게 해주며 기본적으로 개인 특색을 확증한다. 이것은 분명하고, 정교한 작업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에 관해 흥분되었다.”

캘리포니아, 아주사대학, 골든 콜드박사

“짐갈로우는 아주 시기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책을 썼다. 전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렇게 잘 쓰여진 책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모든 크리스찬의 세례는 사역으로 가도록 안수식(their ordination)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 깨어나는 것이다. 짐은 그진리를 강화하고 목회를 위해 어떻게 평신도를 동원하고 구비(to mobilize and equip)하는지에 대해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텍사스, 제일감리교회, 담임임목사, 윌리엄 힌슨

“목사들이여, 이 책은 당신이 지도자들을 위해 수습권을 주문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에서, 갈로우박사는 오늘의 교회에서 회복해야 할 동역자의 확실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당신의 지도자들을 구비시키는데 이 책을 사용하라. 그러면 그들이 목회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더 잘도와줄 것이다. 그들에게 단지 이것을 읽어라고 말만 하지 말라. 그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그것을 토론하라. 이 책을 잘 사용하게 되면 당신의 교회는 혁명적이 될 수 있다.

플로리다, 헬스턴목회연구소, 카렌 헬스턴

“나는 도움이 없이 목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다. 어느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평신도들은 당신의 비전을 성공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짐갈로우는 우리에게 평신도목회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교회의 목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 주는 데에 필요한 단계들을 요약해준다. 그의 책은 나의 삶을 축복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축복할 줄로 믿는다. 만약 목사들이 그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목회하기 원한다면, 그는 짐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오클라호마, FCF 창설자, 버디 헤리슨

“이 책이 처음 나왔을때에, 그것은 평신도 포함을 위해 상당히 필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그것은 정말 이 시대에도 다시 필요한 것이다. 목회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평신도들이 포함되어야한다. 이 책은 수확을 위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구비시키고 훈련시키는데 목사들이 사용할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오클라호마, 나사렛대학교총장, 로렌 그래스함

“수년동안 이 책은 내가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는데 있어서 성서적 이해를 갖게 해준 책이다. 나의 목회가 항상 평신도목회를 강조해왔기에 나는 그것에 대한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실제적인 자료로 나는 항상 짐의 책을 사용한다. 그것은 확실히 성서적이다. 그것은 실천에서 입증되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구입해주곤 하였다. 나는 이 책을 자신있게 추천한다.”

플로리다, 미국 감리교 템파지방회장, 데이빗 브라젤톤

“짐의 이 책은 목사와 평신도 양쪽에 꼭 필요한 책이다. 나는 내가 목회한 10여년 이상 이 책에 담겨있는 원리들을 인용하여 활용하였다. 평신도와 목사가 함께한다는 이 원리의 적용은 교회가 믿는자들의 성장하는 몸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다. 짐갈로우는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쓰고 있다. 그의 자료는 잘 정리 되어있다. 이 책은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동기부여하고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우수한 교과서이다. 교회역사를 수년동안 연구하면서, 짐 갈로우는 평신도와 목사가 동역하는, 교회성장을 위한 최상의 원리에 대해 걸작품을 만들었다.”

텍사스, 갈보리채플 담임목사, 돈 조지

“나는 이 책이 평신도에게는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목사에게는 교훈적이고 교화시키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짐 갈로우는 성서적 가르침들, 잘 쓰여진 글, 교육적인 도표, 그리고 실제현장에서 창조할 수 있는 예증을 제시하며 자원자와 직업적인 사역자들이 목회에서 순수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10여년간 나는 세미나에서 짐의 전통적인-확실한-개념, 역사적 자료, 그리고 도표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나는 이 책이 제2차 종교개혁의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하이오, LPM총재, 멜빈스타인브런

“예수님의 대 사명은 선택된 몇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믿는자들에게 말씀된 것이다. 우리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목회에 부름받고 목회를 위해 은사를 받았다. 짐갈로우는 이 진리를 이 책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엘톤(Elton Trueblood)은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16세기에 교회는 평신도에게 성경을 주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목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잘 제시된 것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는 강화된 목회에 교화되고 도전받게 될 것이다.”

켄사스, 나사렛교단 총무, 존 나이트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동원시키는 것은 교회성장과 교회갱신 양쪽에 중심 열쇠이다. 짐갈로는 교회의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평신도와 목사 목양사역에 대해 가장 잘 쓴 것이다. 그의 패러다임은 목사들에게 평신도가 그들의 영적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할수 있도록 격려하도록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목회로 풀어놓도록 또 격려한다. 이 책은 현대 목회의 진실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리고 평신도와 특히 교회지도자, 목사들을 위해 추천한다.”

캘리포니아, 아주사 펄시픽교수, 엘 그랜트

“이 책에서 짐은 목회에서 모든 크리스찬의 부름에 대해 ‘하게 하는 자(enabler)’로서 목사의 역할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히 쓰고 있으며 또한 세상에 대한 선교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책은 잘 쓰여졌고 아주 실제적이다. 목사와 평신도는 똑같이 교회가 사역자들의 군대가 진실로 되도록 하는데에 도전이 될것이다-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봉사하도록 구비시키는 것.”

텍사스, 그레이스교회, 스티브 리질

“짐 갈로우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명백하게 목회에 부름받았다는 것을(성서적인 주해와 연구)강조한다. 목사와 성도는 기능에서 분리되었지 근본에서는 아닌 것을 받아들임으로서 목회에서의 동역자의식을 호소하고 있다. 이 책은 그것의 접근에서 신선하고 구비시키는데 있어서 도전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그가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짐갈로우의 민감함은 그들의 개인적 우선권, 훈련의 필요성을 지각하는데 예증을 보이고 있으며 공유하고 격려하는 위치에 지원그룹을 배치하고 각 믿는자들의 은사를 확인토록 방향을 제시한다.”

오클라호마, 웨슬리안대학총장, 폴 밀스

목 차

서언-----	14
저자에 대하여-----	16
서론-----	17
1. 성서적 근거-----	20
2. 신학을 살펴보기-----	32
3.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	64
4. 목회를 위한 우리의 은사들-----	89
5. 목회를 위한 훈련-----	113
6. 목회로 파송-----	145
부록 A-나의 은사발견으로부터 나의 목회를 발견하기까지-----	165
부록 B-은사의 정의들-----	177
Notes:-----	182

서 언

만약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은 사역자(minister)이다. 당신이 안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예수그리스도는 당신을 의미 있는 목회(the meaningful ministry)에 불렀다. 모든 평신도는 목회에 부름 받았다.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새로울 뿐이다. 그것은 기독교역사를 통해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경 기록자들에게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이 만든 방법이기 때문이다. 평신도목회의 개념은 우리에게 새롭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진리는 지금까지 덜 강조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내/외적 현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우리의 현대시대에 다시 주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믿기로 우리는 그런 현상(움직임)의 부분이다. 참으로 우리는 혁명의 부분이다. 해방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평신도의 해방

이 혁명은 평신도들을 해방시켜 그들이 이미 성서적 의미에서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오게되는 해방(자유)은 뭔가로부터(*from*)의 해방이 아니라, 뭔가를 향하여(*to*) 해방이다. 이 혁명은 아직 여기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들을것 같으면, 나는 당신 역시 그들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워드 버트(Howard But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수년간 평신도 주장주의에 의해 또는 강조에 의해 산출된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은 봄에 제비꽃같이 꽃이 피었다.....일어난 것은..... 크리스찬 책임에 대한 평신도의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1) 칼라일 마르니(Carlyle Marney)는 오고 있는 혁명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썼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확실한 것인데, 루터-칼빈-쯔윙글리-위슬리 시대에 있었던 변화와 같은 것이다.“2)

종종 평신도목회운동의 피부로서 간주되어온 엘톤 트루블라드(elton Trueblood)는 다음과 같이 강한 표현을 했다: "만약 보통교회가 모든 평

신도-남자나 여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인식을 심각하게 채택한다면,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혁명과 같은 뭔가를 가질수 있을 것이다.”3)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인 토마스박사(Dr. Thomas Gillespie)는 이렇게 경고한다: 혁명은 단지 만약 ‘비 성직자’가 올라가기(to move up)를 원하고, 만약 ‘성직자’가 더 넘어가기(move over)를 원하고, 그리고 만약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기(to move out)를 원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4)

우리는 뭔가 흥분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는 정말로 목회에 부름 받았다는 유산의 의미 있는 재 주장(reclamation)의 가장자리에 있다. 당신은 그 혁명 안에 참여하고 있다. 당신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당신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는 목회에 부름 받음에 응답하는 즐거운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런 혁명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

제임스 L. 갈로우

저자에 대하여

제임스 L. 갈로우박사는 샌디에고에 있는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인데 평균 3,000여명이 출석하고 있다. 그 이전에 갈로우박사는 달라스지역에 교회개척자로 봉사했으며 오클라호마 시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의 학교들에서 공부했다: 웨슬리안 대학(A.A.), 나사렛대학(B.A.와 M.A.), 에즈베리(M.Div.), 프린스턴(M.Th.), 드류대학(Ph.D.). 그의 박사논문 주제는 “평신도에 대한 존 웨슬리의 이해”였다. 그는 아내(Carol)와 네 자녀(제니, 여호수아, 야곱, 그리고 조시)가 있다.

서론

평신도목회는 지난 40여년 동안 나의 목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다. 1960년대 후반 내가 신학교 2학년이었을 때에 나는 제임스 케네디박사(Dr. James Kennedy)가 에베소서 4:11-12절을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목사들의 역할은 목회의 모든 것을 그들 자신이 하는 것보다 목회를 위해 평신도들을 구비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는 그의 설명을 듣고 나는 머리가 멍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오늘날 급진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나에게 사실 그랬다. 나는 그의 설교에 너무 흥분되어서 그 테이프를 사서(그 당시에는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 나는 어떤 부분을 외웠고 다른 사람들과 그 내용을 나누기 시작했다. 대학교 학생으로서 듣기 원하는 친구에게 테이프를 들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1970년대에 나는 네 개의 대학원공부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내 공부의 초점은 주로 평신도가 단지 목회에서 수동적인 수혜자(받는자)가 아니라 오히려 목회를 위해 구비되고 훈련되는 흥분되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애쓴 것이다. 나의 박사논문은 평신도에 대한 웨슬레의 생각을 분석한 것이었다. 웨슬레는 많은 것들에서 혹독하게 비판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그의 확신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의 공부를 거의 끝마쳐 갈 때쯤에 대양을 건너고 250년을 지나면서 움직여온 웨슬레의 개념에 대해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웨슬레의 전망에서, 평신도는 목회에 *부름받았고(called)*, 목회를위해 *은사받았고(gifted)*, 목회를위해 *훈련받았고(trained)*, 그리고 목회로 *보냄받았다(sent)*는 것을 발견했다.

1980년대에 나로 하여금 평신도목회 분야에 대해 쓰고, 말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나는 평신도훈련연구소(LITEC: Lay Institute to Equip)지침서를 쓰면서 새 시대를 시작했다. 그 작업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당신이 지금 보고있는 이 책, [목회에서 동역자]이다. 그것에 덧붙여서 나는 여러 곳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강의하는 특권을 가졌는데, 그것은 나의 생각을 더 정리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나는

나의 첫 번째 뮤지컬, [우리(평신도)는 사역자이다]를 썼는데 켄윅(Ken Van Wyk)은 그것을 1983년 1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버트슐러 목사님(수정교회)의 평신도사역자 훈련원에 감사하게도 포함시켰다. 게다가, 두 개의 비디오테이프가(아무도 집에 VCR이 없는 시대이라 좀 이르긴 하였지만) 출시되었는데 [목회에서 동역자]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것들은 평신도신학에 대해 교회역사에서 중요한 6명의 인물들에 대해 리뷰(review)해 놓은 것이었다: 성프랜시스, 마틴루터, 존웨슬레, 알렉산더 캠프벨, 존 모터, 그리고 교황 23세.

1980년대에 초반부에 나는 오кла호마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는데, 나는 ‘개발담당목사’라는 특별한 직함이였다. 그것은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했다. 1980년대에 중반에 달라스-포트월드(Dallas-Fort Worth)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은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어떻게 구비시키고 동원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더 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 나는 남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목사로 있었지만 평신도목회의 중요성은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 내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나는 약 3,100명 정도 출석하는 우리성도들중에 600여명 정도가 포함되는 1년 코스 평신도목회 훈련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1960년에 대학생으로서, 평신도는 목회는 아주 신나는 개념이었다. 1970년대에 그것은 나의 대학원 공부에서 매혹적인 동기부여였다. 1980년대에 그것은 쓰고, 가르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90년대에 나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도록 한 신나는 목회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구비시키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을(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평신도로서 이 책을 읽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속에서 놀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해할 것을 나는 기대한다. 당신은 이류(second class) 시민이 아니다.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대사적인

위치에 부름받았다. 만약 당신이 목사로서 이것을 읽는다면 당신주위에 있는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힘있는 군사로 동원하는 일에 당신이 계속 매진하게 되기를 위해 나는 기도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짐 갈로우

제 1 장 성서적인 근거

평신도, 당신은 뭔가 특별하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신나는 왕국의 성장에 중요하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그렇게 많이 만들었으므로 평신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에게 분명하다.¹⁾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신도라는 것을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미국의 어느 교회이고 간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평신도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할 일이 없다(실업자)—즉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95%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평신도가 종종 교회의 실업자(무직자)로서 정의되어온 이런 상황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교회의 시작 시절의 방법이 아니었다.

A. 바울의 다섯가지 예비적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4: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은 성취해야 할 흥미진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12절에서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가지 일이다. 그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은 목회의 사역을 위해 모든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비(equip)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목회는 그 다음에 교회를 강화한다.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교회에 주어진 사역들은 공통목표를 가지고 있다—목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

목사이든지, 전도자이든지, 또는 교사이든지 일차적으로 할 일은 목회를 나누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구비시키는 것이다. 목사로서 나의 근본적인 할 일은 그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

이다. 나는 구비시키는 자(equippier)가 되는 것이다. 신학교의 주요 할 일은 단지 전문적인 목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구비(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에베소서4:12절에 대한 어떤 번역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만드는 콤마를 “성도”라는 단어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다: “성도의 온전을 위해, 목회의 사역을 위해, 교회의 몸을 세우기(edifying) 위해”(KJV). 이런 세 가지 단계는 그 다음에 목사, 교사 또는 선지자의 세 가지 다른 임무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2)목회의 사역을 하려고, (3)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목사는 세 가지 임무들을 가지고 있다:

1. 성도를 온전
2. 목회의 사역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 그들은 그런가?

“할 수 있게 하는 자”는 한가지 일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봉사/목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비시키는 것

많은 번역들이 “성도들(saints)”과 “---을 위해(for)” 라는 단어사이에 콤마(,)를 두지 않고 있다. 이런 콤마들은 그 구절의 의미를 바꾸게 된다. 한스 류디(Hans-Ruedi Weber)는 이 쉼표를 “치명적인 콤마”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 구절의 의지(의향)를 상당히 바꾸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12절에서 콤마를 유지한다면, 그 목회는 목사, 교사 그리고 등등에 의해 뭔가 이루어야 할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런 배제된 목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그것은 목회를 선택된 몇 명에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 본문은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회를 위해 준비되어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굉장한 포함인데 예수그리스도 교회에서 성장을 생산하는 것이다.

12절에 “준비시킨다”는 단어는 종종 “구비시킨다,” “완성시킨다” 또는 “온전케 한다”로 번역되어있다. 그것이 신약성서에서 첫 번째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를 때인 것이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그를 따르도록 두 팀의 형제들을 불렀다((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은 그들의 그물을 고치려고 보트안에 있었다. ”수선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에베소서 4:12절에 나오는 ”구비시킨다,” 또는 ”준비시킨다”로 번역된 같은 단어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갈릴리인 어부의 지도감독아래 네트가 수선되는 과정이, 우리 주님의 지도감독아래 우리가 수선되어 가는 것에 비교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 네트들은 구비(고쳐지는)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들은 고쳐지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다. 그들은 그들이 의도했던 목적을 위해 준비된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각각에게 맡겨진 목회의 사역을 위해 알맞도록 건축 중에 있는 것이다.

B. 베드로의 6가지 의미 있는 용어들

사도베드로는 단지 전문적인 성직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들(ministers)이라고 강조하는 바울에 일치한다. 벧전 2: 4-5, 9-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핍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서술하는 이 구절들 안에서 6가지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영어성경 TEV에서 첫 번째는 “산돌”;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 세 번째는 “택함 받은 족속”; 네 번째는 “왕의 제사장”; 다섯 번째는 “거룩한 국가”;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신의 사람.”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를 서술하는 첫 번째 용어는 “산돌”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만약 우리가 “산돌”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법에서 사용되어야 하는가? 우리들의 봉사와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계속되는 건축프로젝트-왕국의 건설-에서 모퉁이 돌이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부적합성(부적당)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돌이 되고, 그리스도가 사용한 같은 건물의 부분이 된다. 지금 당신 주위를 둘러 보라. 당신은 그것은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것을 듣기조차 할 수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류가 쥔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건축 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런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5절에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불린다; 더 나아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린다.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우리자신이다.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제사장들인데 봉사와 목회에서 하나님께 우리자신을 매일 드리는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선택된 족속의 부분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사이에 있다고 그것은 말한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제사장들이 아니다; 우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 전 우주를 통치하는 왕! 얼마나 명예스러

운가?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직”에 속해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국가의” 멤버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행운아인가? 왜 우리는 선택되었는가? 우리는 선택되었기에 우리는 멋지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활동이란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이것이 평신도의 사역이다. 이것이 우리각자의 목회이다. 우리 모두는 그에게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되었다. 우리는 특별한 왕국, 특별한 사람들의 나라의 부분이며,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인 목회를 위해 구별되었다.

오스카 퓨케트(Oscar Feucht)는 <모든 사람은 사역자이다> 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호칭들은 모든 신자들을 사역자의 위치로 올려놓는다. 그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에 의해서 한 번 수행된 역할 속에 모든 크리스찬을 넣는다.”²⁾ 토마스 길레스피(Thomas Gillespie)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평신도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가진 새로이 상승하는(*upward*) 방향이다- 사역자의 위치로 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상승“³⁾

사도베드로는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단어들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성전(temple)”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건설된 것, 즉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썼듯이 “땅위에 하나님이 ‘살고있는 것’은 더 이상 세상과는 구별된 건물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사람들로서 인 것이다.” 에베소서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 성전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2:19-22).

사도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단어는 우리의 토론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말이다. 제사장이란 누구인가? 모든 믿는자 들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직이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한시켰던 때가 성서역사 속의 어떤 시대에있었다. 그런데 신약성서에는 그렇지 않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약의식은 임시적이었고 새로운 제사장직이 형성될 어떤 날이 온다는 것이다. 그날이 왔다! 우리가 그 제사장직이다.

신약성서 의미속에 있는 것 중에 또 우리가 이해해야할 것은 “희생”이라는 용어이다. 신약은 희생을 끝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희생의 본질(성격)을 확실히 바꾼다. 신약안에서 요구하는 희생은 우리자신들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우리의 활동을 의미하는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한 희생으로 드려야한다고 말한다(롬 12:1). 우리의 희생들은 찬양과 감사, 개인적인 고백, 사랑스런 봉사, 또는 사랑의 영안에서 행한 행동들을 포함할 것이다. 이런 모든것들이 목회를 함유(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희생을 드려야 한다. 한스쿱(Hans Kung)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런 제물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의 일부분이 아니라, 세상속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가운데 있는 예배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스런 봉사인 것이다.....이것이 신약성서 제사장직의 진정한 희생이다.“

C.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개념은 신약성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목회에 관련지으며 모세를 가르쳤다. 그는 말씀하셨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 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출 19:3-8)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부른다. 그는 단지 전문적인 제사장직에 있는 사람들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고 목회에 부름 받은 사람들로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들은 토마스 질레스피(Thomas Gillespie)가 "중재하는 목회"라고 부른, 즉 하나님과 세상사이에 서 있었던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요한 목회에 부름 받았다. 확실히 그들은 나라(nation)로서 불리워 졌다. 그러나 이것은 그 나라안에 있는 각 개인의 역할을 축소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부름에 대해 혼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신분이나 명예나 또는 특권의 위치가 아니라 종의 신분 또는 목회에 그들이 부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원래 꿈은 그의 백성들이 그(Him)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세상사이에 서있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당신은 주님의 제사장으로 일컬어지고, 당신은 우리하나님의 사역들이라고 불리워 질 것이다" 라고 우리를 상기시킨다(6:1-6). 그의 꿈의 성취는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이와 꼭 같은 진리를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발견한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계1:5-6). 또한 같은 주제를 5: 9-10절, 그리고 20:6절에서도 말하는 것에 주목하라. 오스카퓨케트(Oscar Feucht)는 이렇게 썼다: “신약성서에서 사용된 ”제사장“이란 용어는 교회 건물안에 있는 직원들(Officiants)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자들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역할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서술하는 것이다”6) LA에서 있는 [평신도에 대한 학술대회]의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레스턴(James Reston)은 “종교란 성직자에게 남겨두기에는 너무 심각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떤 이는 기독교는 축구게임과는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축구는 “정말로 훈련이 필요한 스탠드에 앉아있는 16000명과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운동장에 있는 22명으로서” 서술해 왔다. 공적인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기독교는 구경꾼의 경기가 아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사역자이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나는 단지 평신도인데”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프랜시스 아이엘tm(Francis Ayers)의 말이 당신에게 어울릴 수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다....만약당신이 세례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은 이미 사역자이며 당신이 안수를 받았든지 또는 안받았든지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이 진술은 사실로 남아있는 것이다. 당신은 놀랄수도, 걱정할수도, 기뻐할수도, 반감을 가질수도, 의혹을 가질수도, 묵인할수도, 모욕할수도, 또는 격노할수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다”8)

나는 목회자이다(minister). 이런 인용을 해보겠다. 인권운동을 위해 강력한 대변인인 제시잭슨(Jesse Jackson)이 오퍼레이션 브레드베스켓(Operation Breadbasket)을 통해 국가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군중을 동기부여 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고등학교 학생들앞에 서서 “나를 따라 하시오: ‘나는- 중요한 존재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군중들은 “나는- 중요한 존재이다!”라고 응답한다. 그는 “희망을 가져라: 마약을 내려 놓으라” 와 같이 다른 말로 군중을 이끈다. 그러면 군중은 “희망을 갖고; 마약을 내려 놓으라” 라고 응답한다. 나는 어떻게 열정적인 그의 관중이 그가 말하는 것을 듣게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로부터 뭔가 배울수가 있다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사역자이다! 나는 산돌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선택된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이다. 나는 하나님 자신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나는 평신도사역 훈련에서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면서 끝낸 적이 있다: "나는 사역자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평신도들이여 그것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을 사역자라고 말해야한다. 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거나 또는 최소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평신도여, 목회자여! 당신은 모두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를 봉사하도록 당신을 불렀으며 그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였다. 평신도와 목회자들로서 우리는 목회에서 동역자들이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뱀전2:4-5, 9-10절에 있는 아래의 표현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 은 무엇인가?
 - a. "산돌"
 - b. "거룩한 제사장"
 - c. "선택된 사람"
 - d. "거룩한 나라"
 - e. "하나님의 사람"
2. 에베소서 4: 11-12절에서 요약되어 있는 사역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3. 롬12:1절에 있는 "산돌"의 의미는 무엇인가?
4. 그리스도안에서 성숙은 평신도 사역의 효율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5. 다음의 아이디어들을 토론하라:
 - a.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전체사역이 전문적인 목사들의 독자적인 책임이어야 한다고는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다.
 - b. 하나님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평신도의 포함의 아이디어는 구약과 신약 양쪽의 개념이다.

- c. 기독교는 구경꾼 경기가 아니다.
- d. “제사장”이란 말은 단지 안수 받은 사역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야한다.
- e. 목회에서 평신도의 지속적인(증가적인) 포함은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희망적인 표시의 하나이다.

제 2 장

신학을 살펴보자

“나는 신학자가 아닌데”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모든 믿는자들은 신학자들이다. “신학(theology)”이라는 말은 두 히랍어에서 왔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theos)*; 그리고 공부한다는 의미의 *로기아(logia)*. 신학은 단순히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신학자들이다. 물론 모든 면에서 아마추어 신학자들이지만— 그러나 아직 일종의 신학자들인 것이다. “예수님은 주님이다”와 같이 아주 단순한 고백도 신학적인 선언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신학으로서 알려져 있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신학은 어떤 관심의 주제에 대해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독론(Christology)*이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이다. *구원론(Soteriology)*은 구원에 대한 연구이다. *타락론(Hamartiology)*은 죄의 교리를 담고 있다. *종말론(Escatology)*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한 교리이다. *교회론(Ecclesiology)*은 교회에 대한 연구이다. 평신도목회는 마지막인 교회론에 포함되어있다.

우리가 하고있는 것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믿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들어 우리가 키를 꺾고 돌리면 차에 시동이 걸린다는 것을 믿는다. 만약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평신도목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에 심는다면, 우리는 뭔가를 하기 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만약 우리의 목사님이 사역자이고 나는 사역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목회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만약 우리가 우리자신을 우리의 목회와 함께 사역자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사역에 포함될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평신도목회의 신학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평신도 목회에 대한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평신도사역자들이 해야하는 것과 같은 것에서 응답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평신도를 *위한(for)* 신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의(of)* 신학 또는 평신도에 *대한(about)* 신학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평신도를 *위한* 신학이란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단순히 어떤 종류의 신학적인 얘기에 불과하고 그것을 평신도 용어로 해석하는 역할만을 한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나와있다.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평신도를 위해 입맛에 맞는 신학을 정립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르다. 우리모두는 마음속에 평신도의 중요한 위치를 포함하는 신학을 가질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단지 평신도를 위한 신학이 아니라 평신도의 또는 평신도에 대한 신학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에 “신학”이라는 용어는 진부하게 들린다. 그것은 지루한 용어이기도하다.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아주 흥분되는 평신도의 신학을 말하고자하는 것이다.

평신도목회의 신학이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나는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보려고 한다. 물론 더 넓게 확대할수도 있겠지만 세가지를 한정지어 생각해보려는 것이다: 1) 교회, 2) 목회, 3) 평신도.

1. 교 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갖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적어본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적을 것인가? 올겐, 피아노, 강단, 의자, 스테인 유리의 창문, 큰 십자가, 헌금통 등등.

중세시대에,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종종 있었다. 그때에 신학자들중에 어떤이는 교회는 계급조직 또는 성직제도였다고 대답했다. 1500년대에 마틴루터는 그런 정의에 반대했다. 확실히 성직제도는 교회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교회를 가지기 위해 루터는 다음의 것들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믿었다: (1) 올바르게 설교되는 말씀, 그리고 (2) 올바르게 시행되는 성례전. 루터보다 좀 이후에 쓴 존칼빈은 여기에 세번째를 덧붙였다. 그는 강조하기를 크리스찬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시행할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가지기 위해 훈련을 가져야한다.

역사를 통해 다른 것들이 그 리스트에 덧붙여졌다. 나는 교회를 가지기 위해 몇가지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상호목회(mutual ministry)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교회"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다음을 가져야한다

평신도의 목회

교회: (정의)

1. 설교
2. 성례전
3. 훈련
4. 상호목회

다른말로, 진실한 교회의 표시는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잘 시행하고, 훈련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이다. 목회에 대해 내가 의미하는 바는 몸 안에서 또는 교제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헨드릭 크레머는 이렇게 썼다: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목회나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has*) 있는가가 아니라, 근본이 목회 *이어야*(*is*) 한다.”¹⁾ 우리는 어떻게 말할수있는가? 신약성서에서 서술하는 교회는 바로 *목회*이다.

II. 목회

교회의 역할을 잘 설명하는 신학의 분야는 *교회론*, 또는 교회의 교리이다. 만약 우리가 평신도를 포함하여 알맞은 신학적인 시스템을 가지려한다면 우리들중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론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텐데 종종 위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평신도의 엄청난 중요성인데 그들은 그자체에 대한 교회의 생활속에 결코 실제로 신학적으로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평신도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즈음에, 우리는 동시에 새로운 교회론이 요구되는 것이다.”²⁾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평신도에 대한 우리의 신학이 맞아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목회이며, 그리고 제대로 이해된다면, 교회의 놀라운 표시 중의 하나는 그 자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목회이다—그것의 멤버들에 *의해서*(*by*)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for*).

어디로부터 교회는 그것의 목회를 유출해so는가? 그것은 누구로부터 이런 중요한 소명을 받았는가? 목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신약성서속에서 목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리차드 헤링턴(Richard Harington)은 이렇게 썼다: “교회는 목회이다; 사실, 교회가 예수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은 *목회*가 되어야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라 목회를 수립하였기 때문이다.”³⁾

예수님은 목회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하게 말했다.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왔다”(막10:45). 우리가 알고있

는 “목회라는 단어의 희랍어가 디아코니아(diakonia), 즉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했다: “....(마 20:26-27). 간단히 말하면, 목회란 종이 되는 것이다.

A. 교회안에서

예수님이 시작한 목회는 그의 승천때에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안에서 계속된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이야기의 두 번째 책이다. 복음서는 단지 예수님께서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의 이야기였다. 예수님의 지상 삶은 단지 끝이 아님을 아는 활동의 시작이었다.”4) 당신과 나는 예수님이 시작한 것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 마틴루터는 그것을 “당신은 작은 예수이다” 라는 단어로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였다.

2천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속에 인간이 되셨다. 이 사건은 성육신이라고 불리웠다. *카네(carne)*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스페인어와 같은 어떤 언어에서 그것은 “고기(meat)”를 말한다. 다른 언어에서 그것은 “살고기(flesh)”를 말한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육신이 된 것(en-flesh-ment)”를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은 인간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갇혀있는 그들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성육신은 오늘도 계속된다. 하나님은 인간 육신속에 계속 살고 계신다.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독특성을 알고 있다. 동시에 성육신이란 것은 당신과 나 안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꽤 중요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된다는 사도행전의 전체교훈이다.”15)

예수님은 그가 한때 있었던 그런 방법에서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그의 사역을 계속한다. 어떤 사람이 썼듯이 “예수님은 단지 불멸의 이름과 영향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활동적이고, 아직도 능력이있다.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 그는 지금의 그 이며, 그의 삶은 지금도 계속된다.”6) 우리는 이모든 것을 *성육적인 신학(incarnating theology)*이라고 부른다. 성

육적인 신학은 이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서 터치 할 때에, 실제로 *터치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터치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우리의 목회에서 다른 사람을 터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터치하는 손은 우리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손이다. 어떤 의미에서 성육신은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것이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선택하시는 것이다.

이런 진리는 켄 메드나(Ken Medena)가 쓴 *더 게더링(The gathering)*이라는 노래 제목으로 쓴 음악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교회가 교회일 때에 그것은 그의(His)사람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보다도 많지도 적지도, 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은혜의 의미의 한 부분은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안에 있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제사장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

만약 우리가 교회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것처럼 당신은 나의 눈물, 나의 분노, 나의 죄를 이해할 것을 알고, 뭔가 그리스도는 당신의 눈으로서 볼 것이고, 당신의 손으로서 나를 터치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치료할 것을 믿는다.

만약 우리가 오늘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분의(His)대표자들이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목회를 보기원한다면,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아야한다. 사실, 우리는 거울을 통해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이런 목회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닿으려고 다가 갈때에 우리는 우리자신이 첫째 교회안에서 다가가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의 한 부분인 그들에게 특별

하게 닿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아주 알맞은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제사장”이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제사장”이다. 우리는 서로가 제사장들로서 기능한다.

B. 세상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회를 계속하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닿게되는 두 번째 방향이 있다. 우리는 단지 교회안에서 만 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속으로 닿게된다. 수년전에 유행가 가사가 이런것이 있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손에 닿아서 터치하라;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을 더 낮게 만들라.”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는 그런 말을 약간 바꾸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다른 사람의 손에 닿아서 터치하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 예,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닿는가? 우리가 한다. 그러나 그 삶에 실제로 누가 터치하는가? 그분이 한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터치한다.

영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돌봄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 그것이 바로 평신도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 그것이 바로 로저 코펠랜드(Roger Copeland)가 “당신의 이웃에게 다가가라”라는 제목의 노래말에서 쓴 것이다.

당신의 이웃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정말로 돌보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하라.

그가 외로울 때에 다가가서,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하라.

구름이 그의 앞을 가리울 때에 그의 어두움 안에 다가가라.

그와 함께 걷고, 그와 함께 말하라.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때문이다.

1. 소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다(마5:13). 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 소금이란 것은 몇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소금은 *청결* 했다.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은 청결의 질을 반영해야한다고 가르쳤다.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였다. 당신은 현재 냉장고이전 시대를 기억할텐데 소금이 고기를 방부하던 것으로 사용되었었다. 회랍인들 생각에 소금은 고기에게 새로운 영을 주는 것이었다.

세 번째 소금은 *맛*을 내었다. 우리는 소금이 맛을 내는 능력에 대해 매우 감사하는데 우리는 종종 식탁에 앉을 때 항상 소금 병이 있게 마련이다.

소금의 네 번째 질은—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중요한 질—사람들을 *갈증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팝콘이다. 나는 두꺼운 스테이크보다는 큰 봉지의 팝콘을 더 좋아한다. 나는 며칠동안 집을 떠나있을 때 대화 속에 항상 팝콘얘기를 꼭 넣는데, 그러면 내가 머무르고 있는 집 주인은 만약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팝콘은 항상 갈증이 나게 한다. 왜? 버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팝콘 그 자체 때문인가? 아니다. 그것은 소금이다. 소금은 갈증을 만든다. 평신도목회자로서 당신의 삶은 당신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 갈증을 만든다—생수에 대한 갈증.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 어떤 매력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믿는자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을 창조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질문을 갖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 이유를 주는 기회들을 창조할 것이다.

2. 빛(Light)

예수님은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다(14절), 여기에서 그는 믿는자들로서 우리는 *보여진다(visible)*는 것을 먼저

의미하였다. 비밀스런 제자와 같은 것은 없으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크리스찬은 없다. 나는 단지 크리스찬들만 사는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했던 크리스찬 건축설계사에 대해 한 번 들은적이 있다. 나는 그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을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믿는자들은 단지 다른 믿는자들과만 교제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은 신약성서의 오해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렇다: *우리가 교회 건물속에 있지않을 때 우리는 최상의 교회인 것이다!*

우리는 빛에 대한 또 다른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빛은 안내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 안내자로서 봉사할때가 있었다. 세상은 삶에 대한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전혀 놀랄일이 아니다. 믿는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자신을 오래살게 할 우리자신들보다 상당히 더 큰 움직임(movement)속에 포함되어있다.

믿는자들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빛에 대한 세 번째 질적인면은 등대와 같이 경고(warning)를 주는 빛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 아주 특정지워지는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조용한 심판으로 서있게 되는데, 그것 자신의 멸망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3. 닿기(outreach)

거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할 위험이 있다. 교회들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자기포함(self-contained)도 할 수 있기에, 그들은 그들의 메세지를 가장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접촉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소위 식탁용 소금뿌리기(saltshaker)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흩어지기보다 종종 소금뿌리기 그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 더 쉽다. 확실히 교회는 *모이는 때가 있어야(church gathered)*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데 단지 흩어지기 위한(to be scattered)* 힘을 받기 위해서다. 교회성장운동의 아버지인 맥가브런(Donald McGavran)은 이런 경고를 하였다: “교회는 그들의 이웃들로부터 분리될 수(so divorce) 있고 봉합하고, 또 그들은 내향적이 되어 복음을 커뮤니케이트할수 없는 것

이다. 그들은 세상에 불순종하고 그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멀리한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속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들의 주인(Master)과 같이, 그들은 실제 세상속에서 무시되고, 더럽고 그리고 죄 많은 마을과 도시속에서 성육화되어야 한다.”7)

교회와 세상

(교회 — 세상)

1. ○↔● 갈등(conflict)
2. ○● 협동(cooperators)
3. ○● 교회가 세상위(church above the world)
4. ○→● 긴장(in tensions)
5. ○→◎ 세상을 구속하는 교회(church redeeming world)
"개종자/conversionist"

교회의 존재이유는 아직 그것의 경계선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리차드니버(Richard Niebuhr)는 교회와 문화사이에 관계성을 설명하는데에 다섯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였다. 교회와 현대문화 사이에 관계성을 이해하는 한가지방법은 그들은 서로 상충(at odds)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갈등하는 가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을 같은 것(the same)으로 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와 세상은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교회와 그것의 주위 사이에 관계성을 보는 세 번째 방법은 교회는 뭔가 문화위에(above culture)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그것보다 우수하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이런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에 네 번째 방법은 그들은 항상 서로 긴장(in tensions)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

에 따르면, 양쪽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서로 완전히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화와 문화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한가지가 더 있다. 이런 다섯 번째 인식은 문화를 바꾸는것(*transfer of culture*)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개종자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는 모든 사회를 구성한다는 과정에서 본다는 것이다.

클리포드 리지트(*Clifford Wright*)는 이런 구속적인 역할을 다음의 세가지 도표로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 부터 교회속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말한다. 다른말로, 그들은 *모인 것(gathered)*이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상속으로 *보내졌다는(sent into the world)*것이다. 그들은 *흩어진 것(scattered)*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교회속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중국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보내져서 한번 더 흩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 받은 그런 사람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높이로부터 빼내오는 것이 아니라(전도) 또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은 교회 안에 있는 만큼 세상속에서도 그런것이다.

III. 평신도

당신은 어떤 사람이 “그러나 나는 단지 평신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러나 나는 단지 평신도입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은 평신도가 되는 귀한 부름(*high calling*)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평신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만약 당신이 정의를 쓴다면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 나는 그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보았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아는가? 그렇다! 당신은 이미 뭔가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평신도에 대한 정의를 써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의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신도란 설교자 아닌 사람, 신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 그리고 목사가 아닌 사람.”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부적합한 정의이다. 무엇 무엇이 아니다 라고 뭔가를 정의하는 것은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뭔가를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당신에게 바나나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나나는 강철로 만든 것이 아니고, 4층이나 높은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CB라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신도(laity)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A. “라이코스” 또는 “라오스”(Laikos, Laos)

희랍어는 우리가 쓰는 평신도란 말에 대해 두가지 어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라이코스(laikos); 다른 하나는 라오스(laos)이다. 라이코스(laikos)라는 말은 ‘교육받지 못한 군중,’ ‘전문가가 아닌 사람,’ ‘어떤 주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의미에서 평신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조하여 라오스는(laos)는 “사람들”이다. 신약성서에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라이코스(“교육 받지 못한 군중”)라는 말은 신약성서 안에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대조적으로, 신약성서는 라오스(“하나님의 백성”)를 계속 사용한다. 다른말로, 당신자신을 “나는 단지 평신도이다”라고 받아들일 때에는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중의 한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서, 우리는 평신도는 뭔가 부정적이고 비어있는 것으로부터, 뭔가 성서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이해속에 풍성함으로 바꾸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중의 한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라오스, 즉 하나님의 백성중의 한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음부터 어떤이가 “나는 단지 평신도인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한사람인 것에 대해 축하하고 또 존경해야하는 것이다.

이제 “목회(ministry)”라는 말에 대해 얘기해보자. 만약 우리가 목회라는 것을 생각하며 신학적인 진술을 써본다면, 그것에 어떤 것을 포함시켜야 할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목회를 생각할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설교자, 목사, 신학교 나온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려한다. TV, 라디오, 신문

들에서 "목회자(minister)"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안수 받은 사람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용어의 성서적사용이 아니다. 목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모든 믿는자들의 목회로 시작해야한다—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 즉 라오스의 목회. 이것은 가끔 일반적인 목회 또는 우주적인 목회로서 언급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나 목회(사역)에 부름받았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즉 Laos 안에 소위 목사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다. 그들은 종종 목회 전문적인 목회, 또는 대표적인 목회로 불리우기도 한다. 다른 말로, 모든 믿는자들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서적으로 볼 때 사역자들이다. 목회에 대한 어떤 이해든지 간에 그런 확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을 넘어서서, 봉사의 특별한 영역을 위해 부름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전체 지체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목사 또는 성직자로서 언급하는 것이다.

목회에서 그런 전문적인 목회의 역할들은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례전(세례식, 성찬식)을 집례하는 것이 있다. 전문화된 목회, 또 다른 기능은 질서를 위해 교회생활의 행정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을 책임자로 본다면, 교회 삶은 분명히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미부여와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우리의 그룹안에 어떤 사람은 행정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 또 중요하게 보이는 네 번째 기능은 할수 있게 하는 것(enablement)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수받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중의 하나는 할수있게하는 것의 목회(the ministry of enablement)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역들을 하도록 돕고 또 협력해준다는 것이다.

그들(목사)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하도록 해줄 수 있을 때 목회자로 부른 자신들의 소명을 가장 잘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목사들이 우주적인 목회 안에서 전문화된 또는 할수있게 하는 목회를 가지고있

는 이유이다.

그러면 이제 목회에 대해 진술을 우리는 무어라 써야하는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그것을이렇게 썼다: "제 1 장 목회의 본질 - 크리스찬 교회안에서 목회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다.....그것은 교회에 수여하고 또 요구하는 목회이다. 모든 크리스찬은 목회에 부름 받았다.....제 2 장 - 안수받는 목회 -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 성례전, 그리고 훈령"9) 다른 말로, 목회에 대한 토론은 만약 그것이 성서적으로 입증되려면 평신도의 목회로 시작해야한다.

B. 누가 사역자들인가 ?

아래의 도표는 목회에 대한 신약성서 개념을 분명히 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두가지 도표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평신도에 대한 비성서적인 인식이다. 세 번째 도표는 우리가 앞에 몇페이지에서 설명한것이다. 첫 번째 도표를 보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평신도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본다. 이 어떤사람들은 목사가 되도록, 어떤사람은 평신도가 되도록 불렀고, 그리고 둘은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본다. 다른 사람들은 도표 2 처럼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차별을 둔다. 작은 화살표는 목회를 표시한다. 그래서 평신도는 목사, 안수받은 성직자의 목회를 받는다. 이 도표에 따르면, 평신도는 근본적으로 피동적이다. 그들은 목회에 *동참하기 (involved in ministry)* 보다 오히려 목회를 *받으려고(receive)* 한다.

세 번째 도표는 "평신도 목회(the ministry of the laity)"라는 문구에 가장 가까운 것을 나타내 것이다. 이 도표에서, 당신은 화살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화살표는 목회에 또는 사역에 부름을 나타낸다. 그것은 우주적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 예수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사역에 부름 받았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이들은 대표적인 목회의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도표의 아래 부분에 있는 화살을 보게 된다. 이 화살은 어떤 사람은 "우주적으로 부름 받았는데" 구비시키는 자들(대개 목사)이 되도록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은 대표적인 또는 전문화된 목회로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에 대해 그들의 목회안에서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너무 종종 우리는 성직자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서 목회를 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평신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부름)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사역자들(the ministers)을 목사안수 받은 사람들이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목회자들(pastors) 또는 목회적인 사역자들(pastoral minister)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은 사역자들이다”라는 문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사역자(minister)라는 타이틀을 붙여서는 안 된다. 내가 전에 목회 하던 교회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타이틀에 의해 혼동스럽게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경우가 아니면 결코 나를 그들의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목회자로 언급하려하고 그들 자신들을 사역하는 평신도들로 보려고 하였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목회한다”라는 단어를 평신도로서 그들을 서술하는데에 사용했다. 그들은 매주 상기하고있는데 교회는 단지 한사람의 목회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예수님의 제자들 숫자만큼 많은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직자에 대한 평신도의 관계성에서 많은 혼동이 있어왔다. 웨버(Weber)는 이 관계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식화하였다.

아래로 내려가는 두선(1번)은 목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성령의 힘을 나타낸다. 큰원(2번)은 목사와 평신도 양쪽을 포함하는, 교회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다. 작은 원(3번), 즉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구별된 사역자들인데, 안수 안받은(unordained) 사역자들 위에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관계성(4번)은 상호 복종과 상호 봉사로 특정지워진다. 이 도식은 평신도와 목사가 경쟁자가 아니라 목회에서 동역자들(partners in ministry)로서 묘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도식을 목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직자라고 부르는 사람의 중요성을 부정한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평신도목회'에 대한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

평신도 목회의 중요한 교리는 동등하게 목사의 목회의 중요한 교리를 가정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워드 그림스(Howard Grimes)는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설명했다:

평신도의 의미에 대한 이런 높은 평가는 잘못된 결론이 되도록 하는 것 같이 보인다: 말하자면, 안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평신도는 성직자가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데, 성례전 까지도 포함해서이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전통에 나를 매달려 있게 하는 듯이 보이는, 멤버들의 기능의 차이가 있게 하는 순서를 강조하는 더 알맞은 일반화까지 포함해서이다. 모든 사람은 봉사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다; 그 봉사의 성격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것은 안수 받은 목회의 특별한 사역도 포함하였다.¹¹⁾

목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을 강조하는 평신도는 [평신도목회]라기 보다 [평신도 반란]이 될 수 있다. 평신도 목회는 목사를 필요로 한다. 알버트 오텔러(Albert Outler)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일반적인 제사장직과 평신도의 안수는, 교회 안에는 또한 특별한 목회가 있다는 사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대표적인 목회” 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아메바(amoeba)의 수준(level) 위에 있는 모든 유기체들은 그들의 다양한 기관과 기능들을 구별하며 기능적인 계급제도를 나타낸다. 모든 평신도는 사역자들이다; 그러나 모든 평신도가 같은 직책(office)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을 위한 교회 사역의 효과성은 안수를 받았든지 그 반대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다양한 직책의 구별에 달려있는 것이다.¹²⁾

평신도목회에 대한 강조는 안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안수의 개념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야한다: 그 사람은 단지 목회를 향해 안수받은 것이 아니다. 안수받은 목회자는 많은 목회자들(사역자들)– 평

신도 사역자들을 준비시키는 자(the equipper)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 “목회(사역)”라는 용어는 결코 안수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소유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라오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다. “목회”와 “평신도”라는 용어는, 만약 우리가 성서적으로 사용하기 원한다면 구분될 수 없다.

IV. 직업

A. 일과 예배

목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네 번째 중요한 단어는 *직업(Vocation)*이다. 직업에 대한 교리는 가끔 ‘자루걸레(dust mop)의 신학’으로서 바꾸어 쓰기도 한다. 자루걸레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엘톤 트루블라드(Elton Trueblood)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했다: “잘 해낸 세속적인 일은 '거룩한 사업이다'”.¹³⁾ 다른 말로, 월에서 금요일까지의 일은 단지 세속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행동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맞게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일은 완전함(전체성: wholeness)을 산출한다. 그것은 목적감(a sense of purpose)과 완전함을 준다. 일하는 사람들은 창조의 과정에 참여한다. 알맞은 자존심은 창조성으로부터 생겨진다. 트루블라드는 계속 말했다: “월급을 주는 것보다도 더 다른 인센티브(incentive: 자극, 고무, 동기부여)가 없는 일은 자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노예에 더 가깝다.”¹⁴⁾

두 번째, 우리가 일을 알맞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찬양하는 행동이다. 일도 거의 같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해야한다고 바울은 말했다(고전10:3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을 건설하거나 또는 곡식을 심거나 또는 수술을 하는 것은 아주 가능하다. 찬양과 예배의 행동처럼 마루를 청소하는 것은 아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루걸레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평신도들은 그들의 직업을 뭔가 비종교적인 것으로 본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취업기회들을 “비성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와는 뭔가 아주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두극(정반대)의 존재로 살아간다. 그들은 동시에 ‘교회의 세상’과 ‘세상의 세상’ 양쪽에서 살아간다. 나와 같은 사람들, 즉 안수받은 목사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세상속에서 살고 있다. 평신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동시에 두 세상속에서 분명히 살고 있다.¹⁵⁾ 그리고 *양쪽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진실한 크리스찬 평신도는 “복음의 주요 표현으로서 그들의 일(일과)을 마음에 그리는(상상하는) 자동차 수리공 또는 청소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창조의 사역속에서 즐거이 돕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B. 이중목회

평신도들은 소위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교회사역*과 *직업적인 사역*을 가지고 있다. 양쪽은 평신도 목회의 균형적인 이해를 갖기 위하여 포함되어야한다. 만약 우리가 직업적인 사역을 언급함이 없이 교회사역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말하려고 한다면 평신도들은 주중에 8시부터 5시까지 사이에 그들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장에서 퇴근할 때 그 날을 낭비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줄 수 있다. 그들은 단지 교회 사역들만이 하나님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구조 그 자체 안에서 만의 사역에 한정적으로 초점을 맞추려한다. 다른 크리스찬 기구(기관)들은 단지 직업적인 사역의 중요성만을 얘기하려고 한다. 평신도 목회에 대해 알맞은 이해는 신중한 균형을 요구한다. 그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의 양쪽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 상당히 관심이 계시다. 나는 여기에서 이런 놀라운 성서적 교리를 말하는 찬송가 “콘크리트의 하나님, 강철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읊어 보고자 한다.:

콘크리트의 하나님, 강철의 하나님/ 피스톤과 바퀴의 하나님/ 철
탐의 하나님, 증기의 하나님/ 대들보와 가로들보의 하나님/ 원자와 광물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힘이 당신 것입니다!!

테이블의 주님, 첼로의 주님/ 자동차 길과 우편의 주님/ 로켓의
주님, 비행기의 주님/ 우주선의 주님/ 번갯불의 주님/ 세상의 모든 속력이
당신 것입니다!

과학의 주님, 예술의 주님/ 지도와 그래프와 차트의 주님/ 물리
학과 연구의 주님/ 성경, 신앙 그리고 교회의 주님/ 연속과 디자인의 주님
/ 세상의 모든 진실이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영광이 지구를 채우네/ 우주를 탄생케 하셨네/ 부
활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풀어 놓으셨네/ 악한 병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
셨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인류를 요구하셨네/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당신
것입니다!

이 찬송, “콘크리트의 하나님, 강철의 하나님” 은 1968년
리처드 존스(Richard G, Jones)에 의해 작시되었다.

목회의 길들(avenues) 중의 하나는 우리의 직업이다. 우리의 직업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바로 그 행동은 그들 자신 안에/에게는 목회(ministry)
이다. 다른 말로 나의 아버지가 들판에 곡식을 나갈 때, 곡식을 심는 행
동 그 자체는 목회인데, 그것은 내가 설교준비 하느라 보내는 시간만큼이
나 하나님께는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또는 우리
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집에 페인트 칠 하는지,
어떻게 설거지하는지에 덜 흥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흥미
가 없는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없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
이 있다:

최근 세대에 있어서, 부름에 대한 인식을 “목회에 부름”으로 중

중 제한시켜 왔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목회 하도록 부름 받는다든지 또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다 용어의 사용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부적합하다.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초기적이고 더 생생한 개념을 발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목사의 사역에 서약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 자신을 농사의 사역에, 그리고 의학 또는 법률의 사역에 서약한다.17)

C. 죄의식으로부터 자유

한번은 직업의 교리에 대해 말한 후에, 의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을 들으며 나는 상당한 죄의식이 내 어깨에서 벗어지는 것을 느꼈는데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목사 사역보다도 다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뭔가 이류시민(second-class citizen)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직업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 한 변호사는 젊은 날에 법률 상담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느낀 어려움(pressure: 압박감)을 토로했다. 그는 이것이 목사사역의 부름으로부터 말을 뺏었다고 느꼈던 것이다. 이런 결과로 수년동안 그는 죄의식을 경험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표명했다: “나는 이전에 결코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은 정말로 해방되는 것이다. 나의 직업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기쁘다.”

토마스 질레스피(Thomas Gillespie)는 이렇게 썼다:

라오스(laos)의 각 멤버는 하나님의 부름아래 서 있으며, 각자는 그것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 받은 것”으로 자신을 얘기하는 측면으로 이것을 부정하거나 험상한 방법은 결코 없다(롬1:1; 고전 1:1; 갈 1:1). 하나님의 부름은 정말 구체적인 업무에서 개인적이고 특수적이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은 이것의 최상 본보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성직자”만이 하나님으로 부터 “부름” 받았다는 중세기 시대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18)

“나는 사역자가 아니고; 목수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나는 목수 일을 통해 사역자이다” 라고 설명해야한다. 목수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사역적인 위치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사명(vocation), 직업(occupation)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사명이란 어떤 일이든지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부른 것이다. 직업이란 어떤 사람이 일하는 특수한 상업이나 직업이다.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의 직업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사명적인 부름은 바꾸어 질 수 없다. 사명은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떠하든 지간에 사역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명적인 사역(Vocational ministry)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인 것이다. 사역에 대한 우리의 범위(sphere)는 우리가 직업적으로 바뀔 때에 바뀐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적인 부름은 유리처럼 분명히 남아있다.

그것은 어떤 교회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것과 같다: “오늘날 믿음의 실제 전쟁터는 공장, 가게, 사무실, 그리고 농장에서 싸우게되는 것이다. 정치적인 정당들과 정부기관들 안에서, 수많은 가정에서, 출판사이에서, 라디오와 TV에서, 국가간의 관계성에서도 그렇다. 너무나 종종 그것은 말해 진바있는데, 교회는 ‘이런 범위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사실 교회 이미 평신도의 사람들 속에서 이런 범위들 안에 존재한다.”¹⁹⁾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하라” 라고 바울이 썼을 때에(고전 10:31), 그는 단지 목사직이나 종교적인 활동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평신도가 포함되어있는 모든 활동을 언급한 것이었다.

“교회,” “사역,” “평신도,” 그리고 “사명,” 네 단어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평신도목회의 신학을 갖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주요 용어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평신도목회의 신학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2. 평신도를 위한(for) 신학과 평신도 의(of) 신학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성육신 적인 신학”이란 어떤 의미인가?

4. 이런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은 그것이 교회안에 있는 것과 같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다.”

5. 모든 믿는 자들의 사역과 성직자의 특수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6. “자루겔레의 신학”이란 어떤 의미인가?

7. 어떤 사람의 사명적인 사역과 그 사람의 직업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 3 장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평신도 목회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평신도목회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함정들을 피하게 하고, 이전에 성공한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평신도이든 목사이든 이런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회에서 더 효과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근본적으로 그리고 성서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역자들이라고 고려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중의 몇 명만 사역자들로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나머지는 평신도로 인식하게 되었는가?

I. 성직자-평신도 이분화

A. ‘크레로스’와 ‘라오스’(Kleros and Laos)

어떻게 평신도와 성직자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뚜렷이 구분되어왔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은 두 개의 희랍어 라오스와 크레로스를 알아보는 것이다. 가볍게 보면 우리는 라오스를 ‘평신도’ 그리고 크레로스를 ‘성직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 듯이 라오스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크레로스는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별개의 그룹, 안수받은 그룹, 꼭 우리의 성직자들에 대해 말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크레로스는 단순히 “무리,” 또는 뭔가의 일 “부분”- “한 부분,” 선택된 부분, 구별된 부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희랍어 크레로스가 신약성서에 나올 때, 그것은 성직자로서 알려져 있는 선택된, 또는 구별된 사람들의 그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리 만치 그런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이 두 단어 크레로스와 라오스는 그들이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나타난다-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인간의 그 부분(that portion)에 대한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신은 “나는 라오스(하나님의 사람)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는 *크레로스*(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성서시대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엘톤 트루블라드는 이렇게 썼다:

52년의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1952년의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교회 사이에 차이는 정말로 엄청나다. 자체건물이 없었기에 고린도 크리스찬들은 회당이나 가정집을 사용했다.....우리에게 보여진 그림은 좀 부족했지만 헌신적인 그룹이었고, 그들 모두는 선교사로서의 헌신에 불타있었고, 그리고 능동적인 사역에 참여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 모두는 평신도였고, 그들 모두는 비전문가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사역자들이었다. 1)

*라오스(laos)*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수 차례 나타나지만, “교육받지 못한 군중”이라는 의미의 *라이코스(laikos)*는 신약성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평신도를 라이코스로서 생각하고있다-교육을 안 받았고, 훈련이 안됐고, 신학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lay person)”라는 말이 크리스찬 저술에 처음 사용된 것은 A.D 95년경 고린도 교회에 보낸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가 쓴 편지 속에서 였다(1 클레멘트 40:6). 그 편지에서,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군중(the messes of people)을 대조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런 구별은 수세기를 통해 계속되어왔으며,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으로서의 성직자와 훈련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평신도 사이에 이분법은 여전히 남아있다.

기독교의 초기시대에 어떤 교부들은 평신도의 목회를 확언하였다. 순교자 저스틴(ca. 100-165)과 이레네우스(ca. 115-200)는 평신도가 진짜 성직자가 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터툴리안(ca. 160-230)은 세례를 평신도의 안수로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바있다. 이런 진술과는 대조적으로,

성직자의 평신도사이에 점진적인 분리가 개발되었다. 제롬(ca. 340-420)의 초기 저작에 보면, 성직자는 엘리트(elite)로 간주되었다. 비록 크레로스(Kleros)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진적인 개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입증한다.

한스 쿡(Hans Kung) 이렇게 말했다:

사도행전 1:26절에서, *크레로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누구를 유다의 후임자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제비뽑기(lot)'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이런 의미로부터, *크레로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할당하다(allot)는 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것이 “크레루스(clerus)” 말의 사용으로 진행되었고.....결국 성직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언급하게 되었다. 오리겐(ca. 185-254)과 같은 초기 학자에게 있어, 크레로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대해 반대되는 뜻으로서, 교회안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용어가 되었다. 제롬에게 있어서 “크레루스”는 주님의 특별한 자산 또는 주님은 그들의 몫(당첨), 그들의 주식(할당)이다. 2)

크레로스

-로부터(from):

“몫” 또는 “할당”(하나님의 모든 백성)

까지(to):

“주님의 몫”(단지 성직자)

B. 기능으로부터 신분까지

*크레로스*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지만, 초기에 그 말은 사람들의 작은 부분인데 *라오스(laos)*의 나머지로 부터 분리된 것

으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교회역사를 통해서 개발되었는데 ‘특별한 특권으로 상승된 사람들의 그룹’으로이다. *크레로스(kleros)*는 신분과 같은 것이 되었다.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하여, 성직자로서 알려지게 된 일단의 사람들은 평신도와는 점점 더 분리된 것을 발견하게된다. 성직자는 “계속적인 특권층으로 기록되었고 자체로서 새로운 사회적 계급으로 자랐고 자체의 특권, 면제계급, 옷, 호칭, 직책, 그리고 자체의 라틴문화, 그리고 자체의 라틴 성례식을 가졌다.....초대교회 시대에는 영적은사와 해야하는 일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소위 성직자의 그룹과 소위 평신도그룹 사이의 구별은 없었다.”3)

확실히 성직자는 실제적인 이유들에서 대부분의 평신도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동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주일 아침에서 서서 설교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비 실제적이다. 그것은 또한 시끄럽게만 될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구별은 단지 목회사역의 다른 기능들에 근거했어야했다. 어떤 이는 목회자들(성직자)이고 어떤 이는 목회자가 *아니라*는(평신도)잘못된 믿음에 기초한 분리는 결코 없어야한다.

우리는 또 한가지의 다른 방법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오늘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합법적인 구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에* 근거한다. 즉, 그것은 존재론적인((ontological)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what one is)*, 또는 그 사람의 본질(essence: 실체)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구별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항상 프라이(pliers)를 사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내 손에 프라이(pliers)와 렌치(wrench: 벤치 비슷한것)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해보자. 프라이와 렌치는 기능적인 면이나 존재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기능적인)과 그들이 무엇인지(존재론적인)에 차이가 있는가? “기능적”이란 말은 맞는 것이다. 프라이와 렌치는 확실히 다른 일

들을 한다; 그들은 확실히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같은 것이다(그들은 같은 쇠로 만들어 졌다고 가정할 때). 만약 내가 그들을 녹인다면, 그들은 하나로 섞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프라이와 바나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기능적으로 다른가? 물론 그렇다!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다른가? 그러나! 프라이와 바나나는 그들이 하는 일(*do*)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지(*are*)에 대해서도 전혀다른 것이다. 그들의 본래 근본(*essence*)이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성직자와 평신도사이의 차이는 *법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본질*)에서가 아니라 *기능에 의해서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신분에 의해 그들을 분리시키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all)* 사람을 사역에로의 우주적인 부름에 대해 오해이다

목사들

평신도들

성직자나 목사는 신분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분리된, 받침대(주춧대)위에 올려있지 않아야 한다. 목수로서 일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과는 *기능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일을 한다는 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분리는 그들이 누구인지(*are*)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do*)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다. *양쪽다* 사역에 부름 받았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역들에 부름 받은 것이다.

C. 껍이 심해진다.

우리가 크리스찬 역사를 계속 더듬어 보면,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세기말경에 대부분의 부분의 부분에 있어서 평신도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거의 금지되었다. 325년 초에 있는 나케야회의 (the Council of Nicea)에서, 교회는 “성직적인 계급”

으로서 정의를 내렸다. 정의에 의한 교회는 성직자로 구성된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감독(bishop)이 있는 곳”이라는 문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감독은 회중의 감독자였다. 비참하게도 교회에 대한 그런 정의는 교회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시하였다.

250 년대 초, 안수는 교회 안에 영구적인 발판(디딤판)이 되었다. 그것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종종 잘못 사용되었다. 확실히 오늘날 안수는 중요하고, 그리고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평신도들도 하여금 그들은 사역자(ministers)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쪽으로 사용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초기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을 그들(평신도들)의 사역에서 빼내려고 한, 파워를 행사하려고 한 일탈자였다고 제안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초기 크리스찬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많은 외적인 압력은 그들을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듯 했다.

- 압력: 1. 잘못된 가르침
2. 이교도 주의
3. 박해

- 결과: 1. 신조
2. 정경(성경)
3. 성직자

예를 들어, 엄청나게 잘못된 가르침이 초기 크리스찬들 사이에 유포되었다. 노스틱주의와 몬타나주의(Gnosticism and Montanism)는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였다. 이교도와 박해는 또한 초기교회에 대한 계속적인 위협이었다. 이런 종류의 압박은 세 가지 개발을 촉진시켰다: (1) 신조가 개발되어 사람들은 그들이 믿어야 되는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되었다; (2) 성서의 정경이 개발되어 교회가 그것에 대해 권위를 주게되었다; (3) 성직자가 개발되어 어떤 사람은 신앙을 변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특

수하게 훈련받았다.

4세기경에, 사도적 헌장(*Apostolic Constitution*)은 평신도는 단지 “앉아서 아멘”하도록 진술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평신도에 대한 대우와 다르지 않다 -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순종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아마도 중세기, 즉 590년에서 1517년 사이에 있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분리보다도 더 분명히 분리된 시대는 교회역사에 없을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분리시킨 두 가지 큰 장애물이 더 심화 시켰다. 하나는 언어 장애물이다. 예배 시에는 청중이 이해도 할 수 없는 언어가 말해졌다. 두 번째 장애물은 성례전 장애물이다. 하늘나라에 대해 확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성례를 받아야한다는 교리를 가르쳤다. 시골 신부라도 단지 평신도에게 성례전을 거부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 성직자는 손바닥 안에 평신도로 하여금 영원한 보상 또는 영원한 정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성례전 신학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완전히 구별시킨 주요 원인중의 하나였다고 어떤 역사가는 말했다.

크리스토프 부룩크(Christopher Brooke)는 “중세 시대에 있어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분리보다 더 근본적인 분리는 없었다” 고 말하였다.⁴⁾ 아마도 가장 흥미있는 교회 선언들중에 하나는 A.D 619년에 만들어진 세빌리 종교회의(the Council of Seville)에서 만들어진 것일텐데, 평신도는 성직자와는 분리된 채로 남아있기를 결정했을 때였다. 그런 지배적인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22:10절이라고 하는데, 황소와 당나귀는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익니시우스의 다음과 같은 인용은 평신도로 하여금 그들의 목사에 대해 두려움을 갖도록 한다: “감독을 존경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존경을 받을 것이다; 감독이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⁵⁾

중세시대동안에는 단지 두 가지 주요 평신도 활동만이 있었다. 하나는 십자운동(crusade)인데 성지(Holy Land)의 일부들 사수하려는 일련의 크리

스찬들의 시도였다. 그것은 비극이었는데 평화의 황제(Prince of Peace)에 의해 건축되도록 주장된 교회가 마치 사람들에게는 가장 전쟁과 같은 경향을 이시기에 돌출해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평신도활동은 성당을 짓는 것이었다. 비록 이것이 종종 평신도 사역으로서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건축가와 기술공들은 이런 활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졌다.

II. 평신도 설교 운동

기독교 교회의 많은 역사를 통하여 평신도가 복음(Good News)을 선포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런 운동의 어떤 것은 분명히 이단적(heretical)이었다. 다른 것들은 제정된 성직자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좋은 의미를 갖고 잘 의도된(well-meaning well-intentioned) 평신도들에 의해 인도된 것이다.

A. 중세기 시도와 반대

교회지도자들은 이런 운동에 대해 다양한 방법에서 반응하고 응답하였다. 692년, 트루란종교회의(Trullan Council)에서 평신도는 공중예배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않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교황 레오 1세(Pope Leo I)는 두 개의 다른 교회 두 개의 다른 교회에서 평신도 설교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하나는 813년에 타워스(Tours)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836년에 아헨(Aachen)에서. 이런 금지들은 평신도 설교가 확실히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교회역사에서 아주 잘 알려진 두 인물 도미닉과(1170-1221)과 프랜시스(1182-1226)는 원래 평신도 신분을 가진 설교직책들(preaching orders)을 발견하였다. 도미닉의 설교자들은 청빈과 자기부정의 삶을 살아온 엘리트 선교사 그룹들이었다. 원래 참회(고행)의 설교자들로 알려져 있는 프랜시스의 설교자들은 원래 단순한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가졌다. 다른 평신도 설교운동은 브루이스의 피터(Peter of Bruys), 수도사 헨리(Henry Monk)와 같은 인물들에 의해 인도되었다. 11세기에 평신도 설교

운동에 약간 잘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사람은 피트리네의 밀레네시(Milanese Patariners)였다. 웰든세스(Waldenses)로 알려져 있는 약간 흥미있는 운동이 있는데, 피드 왈도(Peter Waldo/1140-87)에 의해서 인도된 것이다. 왈도의 평신도 설교자들은 리용의 푸어 멘(Poor Men of Lyons)으로 알려졌다. 이 그룹은 아주 비성직자 주의가 되었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것과 대조하여, 프렌시스칸들(프렌시스의 제자들)은 반성직자적이 아니었으며 성직자들의 지원으로 일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두 교황, 알렉산더 III세(?-1181)와 루시어스 III세(1097-1185)는 평신도 설교를 정지 시키려고 했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교황 이노센트 III세(1160-1216)는 평신도 설교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다. 교황 이노센트가 설교하도록 허락한 한 그룹의 평신도들은 북 이탈리아로 부터 온 후밀리아티(Humiliati)로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1215년경에, 교회 회의의 네 번째 라테란 성당 종교회의(Fourth Lateran Synod)는 전체 천주교에 대해 평신도 설교를 금지했다.

평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킨 사람중의 한사람은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ca. 1320-84)이었다. 그와 그의 영국인 설교자들은 교회의 타락(부패)을 정죄했다. 위클리프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를 거절했다. 그는 수백 개의 가정 성경공부 소그룹을 만들었다. 천주교 교회협의회의인 트레نت 종교회의는 1545년에서 1963년에 개최되었는데, 설교는 단지 감독과 성직자에 의해서만이 설교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평신도 설교에 대한 이런 제한(엄격함)은 1917년 줄리어스 캐논(Codex Juris Canonis)속에 발견되었는데, 그 다음해 부터 시행되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로도비코 노고로라(Lodovico Nogorola)라는 이름을 가진 평신도가 평신도설교를 비 합법화한 그 종교회의의 트레نت회의에서 설교하였다!

B. 영국에서의 시도들

평신도설교는 1500년대와 1600년대에 영국에서 꽃이 피었다. 로버트 브라운과 헨리 바로우(Robert Brown and Honry Barrowe)는 모든 사람은

설교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두명의 영국인이다. 1600년대 중반에 존 테일러(John Taylor)는 설교하기 위해 그들의 직업을 떠나는 평신도에 대해 논쟁하였다. 1651년에 영국에서 글을 쓴 토마스 홀과 콜리에(Thomas Hall and Collier)는 평신도 설교에 관련지으며 논쟁하였다. 홀은 평신도는 무시되었고 설교하지 않도록 되었다고 주장했다. 콜리에에는 사도들 자신들은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영국인 돈 립톤(Don Lupton)은 1651년에 평신도 설교를 변호했는데 어떤 사람의 달란트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 소 논문에서였다. 존마틴(John Martin)은 *파송된 설교자 (The Preacher Sent)*라는 제목의 소 논문에서 그 논쟁에 참여했다. 그는 평신도 설교가 많은 남용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반면, "좋은 일의 남용은 그일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는다(not invalidate)"고 설명하였다.

1500년대와 1600년대 영국에서 일어났던 평신도 설교 불꽃은 1660년으로부터 1700년대 초반사이에 걸쳐 눈에 띄게 쇠퇴하였다. 너무나 많은 평신도들이 사역에 포함되기를 상당히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확실히 설교하는 것 외에 많은 사역들이 있다. 그러나 중세시대 동안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 바로 평신도 설교였다.

평신도 설교가 교회지도자들에 의해 격려되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어떤 교단들은 평신도들로 남아있으면서 설교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훈련을 제공한다. 한스 쾅(Hans Kung)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신도 설교의 부흥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는 듯 한데, 현존하는 상태에서 들어맞고 그리고 알맞게 질서만 갖추었다면 충분히 괜찮다; 이런 관점은 단지 신약성서에 의해서만이 지지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현재 상황 양쪽에 의해서이다- 특별히 교회의 감소된 파워와 세속세상의 개발이다-그리고 교회안에서- 특히 설교자들의 부족과 평신도의 성숙이다.....이것은 모든 크리스찬은 공동체 안에 설교하도록 반드시 부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령의 카리스마(은혜, 은총)는 다양하다. 다른 한편으로, 크리스찬에게 승인된 카리스마는 감사함으로 인정되어야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평신도의 설교는 특수한 성직자적인 허락이나 훈련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6)

C. 루터는 개혁자들을 인도한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분리는 교회 역사의 많은 부분을 통하여 넓어지기 시작했다. 성직자는 목사(the ministers)가 되었다. 평신도는 주로 수동적인 역할로 간주되었다. 이런 불균형(imbalance)을 수정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Protestant Reformation)이다.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이상한(unusual)결과를 가져온 아주 평범한 일(usual thing)을 행했다. 그는 공개 토론을 위한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하여, 그것을 교회 문에 붙였다. 이것은 마틴 루터 시대에는 보통 있는 일이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붙인 95개의 불평 또는 소논문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 프린트되어 독일 전역에 뿌려질 줄은 정말 계산치 못했다. 그 루터가 그 날 문에 붙인 그런 진술로부터 한 운동이 일어났는데-독일을 넘어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미친 운동이 되었다. 그것은 엄청난 신학적, 정치적, 그리고 신화적 파장을 가지고 왔다. 마틴 루터의 신학은 종종 소위 네 가지(Four Solas)로 요약되었다: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그리스도(Sola Christa), 오직 은혜(Sola Gratia), 그리고 오직 성경(Sola Scriptura): "Faith alone, Christ alone, Grace alone, and Scripture alone."

종교개혁 신학은 깊은 암시를 가져왔다. 그것은 독일에서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주었다. 루터가 직접적으로 말한 한가지 이슈는 평신도의 사역이었다. 1520년에, 그는 세 개의 논문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독일 고관들에게] 라는 제목의 것이었다. 그 논문에서 그는 이런 논쟁적인 발언을 하였다: "평신도, 제사장, 왕자, 감독, 사이에 차이는 정말 없다. 그리고 로마어휘(Romanist terminology)에서 종교와 세속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찬 신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을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정말로 감독이요, 그리고 교황

이다.” 루터는 무엇을 말하였는가? 평신도는 그들 자신을 정말로 사역자이며 제사장으로 보아야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16세기 독일에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폭발적인 발언이 될 것이다.

아마 종교개혁에서 튀어나온 가장 대중적인 문구는 “모든 믿는 자의 제사장” 이었다. 그것은 또한 종교개혁에서 가장 오해한 문구인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그녀 *자신의(own)*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to others)* 제사장처럼 기능을 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뭔가 다른 크리스찬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이라는 문구 안에서 말하는 제사장직이란 특권이 아니라 *섬김*에 근거한 것이다. 나는 내 등허리를 두들기며 “내가 돋보이지 않는가! 나는 제사장인데” 라고 결코 말할수 없다. 아니, 나의 제사장직은 *섬기는 직책*에 부름받은 것이다.

루터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놀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아야 한다. 뱀전 2장을 훑어보면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제사장이며 희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안수받음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분이 됨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이 된다. 신약성경은 단지 두 제사장직 만을 말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믿는자들의 제사장직.

종교개혁은 평신도의 교회사역만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적인 사역도 강조한다. 기독교신학에서, *소명(vocation)*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그것은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정의에 더 관심을 갖는데, 그리고 그것은 세상 속에서 네 이웃을 섬기라고(to serve) 부름 받은 것이다. 루터는 신성한것(영적인 것)과 세속적인(세상 적인)것 사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하

나눔은 분리되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그는 이해했다. 루터에게 있어서 농부가 농사짓는 것이나 우유 짜는 것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설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평신도의 목회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계성을 분명히 포함하였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가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역할 또는 부름 또는 위치를 통해 그의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위치들(예: 남편, 아내, 비즈니스맨, 젖 짜는 소녀 따위)은 자연법의 구체화(구현)를 굳게 하였으며, 그리고 이런 책임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었다. 루터가 가진 관점의 영향(효과)은 (1)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교회적이거나 종교적인 소명을 빼앗는 것이며, 그리고 사실, 만약 그들이 어떤 사람을 구체적이고, 날마다의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했다면 그들을 비평하는 것이며, 그리고 (2)무책임한 것으로서 모든 유용한 세속적인 직업들이 긍정적인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⁷⁾

아마도 평신도의 직업적인 사역에 대해 가장 심오한 진술중의 하나는,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윌리엄 틴델(William Tyndale: 1494-1536)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부엌에서 사역하는 당신, 사무실에서 사역하는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비교해보신다면 접시를 닦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선장, 상인, 또는 남편, 아내, 누구이든지 그의 형제 자매에게 안녕/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께 하는 것이 됩니다.⁸⁾

그 어느 누구도 종교개혁에서 했던 것보다도 더 평신도목회의 신학을 재주장한 경우는 없다. 어떤 의미로 그것은 일종의 분수계(watershed)이다.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완료되지 않은 운동으로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중요하

다.

수많은 종교개혁이후 운동들이 평신도의 목회를 재 주장하려고 애썼다. 독일 목회자인 필립스페너(Philipp Spener: 1635-1705)는 만인 제사장 직은 실제적인 실천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였다. 그는 많은 창조적인 시도들을 하였다. 모라비안의 독일 지도자 진센도르프(Niklaus Von Zinzendorf: 1700-69)는 목회에서 평신도를 상당히 활용하였다. 평신도에 대한 진센도르프의 활용을 연구한 사람들중의 하나는 존 웨슬리(Johan Wesley)라는 영국인인데 많은 방면에서 평신도들을 사용하였다.

III. 존 웨슬레의 평신도 활용

A.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존 웨슬레는 이름을 들을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많은 우리들에게 있어, 그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도 없는 크리스찬 완전(Christian Perfection)의 교리에 깊이 관련짓고 있었다. 물론 웨슬레는 많은 다른 창조적인 것들을 말했고, 또 행했다. 기독교에 있어서 그의 가장 놀라운 공헌은 아마도 웨슬레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의미있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목회에 평신도를 훈련하고 활용하는 것이었다.

요한 웨슬레보다 더 놀라운 평신도목회 훈련의 예는 정말 찾아볼 수 없다. 영국의 감리교는 평신도의 활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은 근본적으로 평신도운동이었다. 그것의 독특성은 사실 평신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된 것은 *확장(extent)* 되었다. 힐데브란트(Franz Hildebrandt)는 이렇게 말했다: “감리교도의 봉사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웨슬레가 모집한 스케일은 교회역사에 있어서 뭔가 혁명적인 것이었다.”⁹⁾ 성공회 감독 스테반 닐(Stephen Neill)은 웨슬레의 리더들에 대해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책임적인 활동에 대한 평신도의 부름은 결코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었다.”¹⁰⁾

평신도에 대한 웨슬레의 의존을 확인해보는 한가지 방법은 그의 목회실천에 퍼부어진 엄청난 비평들을 통해 측정해볼 수 있다. 웨슬레는 많은 것들에서 비평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두가지 경우에서였다: (1)옥외설교, 그리고 (2)평신도를 설교자로 활용. 그는 그의 성공회 동료들로부터 비난받았다. 그의 동생 찰스 마저도 평신도들로 하여금 목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험한 혁신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웨슬레는 그의 능력적 목회의 반세기동안에 653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켰다. 1739년과 1765년 사이에, 그는 193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켰다. 1765년부터 1790년까지, 그는 460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켰다. 처음 그룹속에 있는 사람들 중의 40%가 그의 죽음시까지 목회에서 그에게 머물렀으며, 두 번째 그룹의 65%가 그의 죽음시까지 그와 함께 사역했다. 그가 훈련시킨 653명중에 374명(57%)은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와 함께 사역을 계속했다. 그는 평신도들을 선택하여 훈련시키는데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언제 웨슬레가 처음 평신도를 설교하도록 활용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첫번 평신도설교자의 이름은 험프레이(Humphrey) 였다고 어떤 이는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그것은 아마도 존 세닉(John Cennick) 이었다고 느낀다. 전통은 그것은 토마스 맥스필드(Thomas Maxfield)였다고 말한다. 이런 보고들에 따르면, 한번 요한 웨슬레는 그의 설교약속시간에 런던에 도착하지 못했다. 토마스 맥스필드라는 평신도가 그 예배에 사회

를 보고 있었다. 웨슬레가 오기를 한참 기다린 이후에, 맥스필드는 결국 강단으로 올라가 설교하기 시작했다. 웨슬레가 영국에 와서 이것을 알았을 때, 그는 화를 내었다. 맥스필드를 꾸짖는 동안 웨슬레의 엄마 스잔나(Susanna)가 화해하기를 강력히 훈계했다. 그녀는 웨슬레가 그런 것처럼 맥스필드도 사역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켰다. 웨슬레는 그녀의 충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평신도설교자로서 평신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평신도들의 그룹이 영국에 영향을 끼치려고 일어

났다. 웨슬레는 이것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평신도목회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웨슬레는 혁신가였다. 그는 복음을 많은 군중에게 선포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것을 평신도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었다. 웨슬레의 행동은 종종 먼저 왔다; 그의 신학은 통상적으로 나중에 그를 후려했다. 웨슬레는 계획(design)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default) 평신도를 활용하게 되었다.

년도	햇 수	평신도목회자	%
1739-1765	26년간	193	40
1765-1790	25년간	460	65

Total

653

57

웨슬레의 평신도설교자들과 다른 평신도설교 운동의 주요차이점은, 성직에 대한 그것의 관계성 안에서 선행하였다. 중세기의 어떤 평신도설교운동은 반성직(anticlerical)적 이었다. 그들중에 어떤 이들은 기성교회를 심하게 공격하였다. 웨슬레는 이것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는 만약 평신도가 알맞게 훈련되었다면 평신도가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enablers)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의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는데 가장 자질을 갖춘 사람은 대개 목사이다. 웨슬레는 그들의 목회들을 위해 평신도를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그를 도와주는 일단의 성직자 그룹에 상당히 의존했다. 그들은 그를 도와서 상당한 평신도들을 동기부여하고, 훈련시키고, 구비시켰으며, 더 나아가 영국 전역에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파송하였다. 그는 이런 사역을 위해 성공회 신부들을 전국적으로 동원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별로 동조하지 않았다. 아마도 4명에도 못 미치는 성공회 신부들이 웨슬레에게 동정적이었다. 아무튼, 몇 명의 성공회 신부들은 웨슬레의 평신도운동을 돕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웨슬레는 이런 평신도 설교자들을 순회하는 팀으로 조직하였다. 1746년에, 단지 6개의 순회팀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1791년 웨슬레가 죽을 때에, 영국에서 만도 114개 평신도설교자 순회 팀이 생겨져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B. 평신도설교자의 임무

평신도설교자는 무엇을 하는가? 분명히, 설교하였다. 웨슬레는 평신도 설교자들이 무엇을 설교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누구에게 설교하고, 어디에서 설교해야 할지의 지침서를 만들었다. 무엇을 설교하는가? 그리스도이다. 웨슬레의 평신도설교자들은 자신의 “견해”-다른 말로, 그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로 설교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는 이런 견해들을 정리하여서 평신도설교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우연히 말하지 않도록 하였다. 평신도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랑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웨슬레에게는 가장 중요하였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평신도설교자들이 평범한 진리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말로 하기를 원했다. 누구에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이다. 웨슬레는 복음은 이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아주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어디에서 설교해야 하는가? 어디든지 인데, 비록 그것이 옥외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웨슬레는 옥외 설교자로서 상당히 비평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평신도 설교자들이 옥외설교를 충분히 하지않았다고 늘 생각하였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만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가서 그들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더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그는 강조했다.

웨슬레의 평신도설교자들은 설교할 뿐만 아니라 목양도 하였다. 평신도설교자들은 수천명의 영국 젊은 새신자들을 목회적으로 돌봄(pastoral

shepherding care)을 제공하였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도시대의 목양도 웨슬레가 한 엄청난 목양(pastoral care)만큼이나 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의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그와 같은 주의력을 기울일 것을 훈련시켰다.

웨슬레의 평신도설교자들은 설교나 목양 그 이상을 하였다. 그들은 찬양을 많이 하였는데 찬양은 후일에 감리교부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록 존과 찰스 웨슬레는 많은 찬송가를 지었지만, 웨슬레는 그의 평신도설교자들에게 노래를 계속 지을 것을 강조했다. 어떤사람들은 노력한 것 같다. 그런 특별한 노래들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부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그들의 기억들을 글로 쓰라고 그들을 격려했다. 그는 또는 이런 것을 출판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평신도설교자들의 삶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들을 읽을 수가 있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순례여정을 주의 깊게 적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웨슬레는 느꼈다.

C. 다른 리더십

평신도설교자들은 단지 웨슬레가 훈련시킨 평신도설교자들이 아니었다. 때때로 그는 지역설교자들로 알려진 그룹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10여명이 되는 소그룹들의 영적인 수준을 갖춘 클래스(class)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그룹의 지도자는 그룹의 각각을 위해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었다. 클래스와는 별도로 거기에는 밴드(band)가 있었다. 밴드는 더 작은 그룹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같은 성(性)의 기혼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 더 친숙한 나눔을 위해 모였다.

그 다음에 웨슬레는 훈계자들(exhorters)을 가졌다. 훈계자는 권고하고, 경고하고, 또는 격려하기 위해 그룹 앞에서 말할 수 있다. 평신도설교자와는 대조적으로, 훈계자는 원고를 갖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는 성서본문으로부터 택해서 그것을 다루지 않도록 되어있다. 단지 평신도설교자만이 그럴 수 있다. 이런 평신도목회 위치에 덧붙여서, 웨슬레는 재정부와 봉사부를 갖고있었다. 그는 또한 환자들을 방문하는 그룹을 만들기도 하였

다. 존 웨슬레는 아마도 기독교역사에서 목회를 위해 훈련시킨 가장 강력한 평신도의 네트워크를 가졌다.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2000여년 이전에 그가 했던 것을 오늘날도 할 수 있다 고는 결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11)

웨슬레의 평신도설교자들 중의 하나는, 1771년 26세에 미국으로 파송된 에슈베리(Francis Asbury)이다. 그는 후에 미국 감리교도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 감리교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확산된 주요이유는 에슈베리가 평신도설교자들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감리교가 미국에서 갑자기 성장한 유일한 교단은 아니다. 침례교 신앙 또한 광야와 대초원을 걸쳐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것은 평신도의 적극적인 활용에 기인한 것이었다. 켄프벨(Alexander Campbell)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그룹을 창설하였다. 19세기 미국에서 그들의 급속한 성장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목회를 강조한 것이 전적이 이유였다.

우리 앞에 있는 수세기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목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다. 목사와 평신도 똑같이 우리 앞에 이미 있는 운동 속에 평신도의 사역을 탐구하면서 엄청난 배당금 유익(혜택)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우리는 오래고, 풍부한 유산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라는 것을 급속히 입증시키는 유산.

토론을 위한 질문

1. 아래의 문장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 “성직자와 평신도사이의 차이는 합법적인 차이이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에서가 아니라 기능에 근거한 차이이다.”
2.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3. 마틴루터는 직업적인 목회를 무엇으로 이해하였는가?

4. 왜 어떤 초기의 평신도설교운동은 실패했는가?
5. 존 웨슬레의 평신도설교자 활용은 얼마나 강했는가?
6. 존 웨슬레는 소그룹 테크닉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제 4 장

목회를 위한 우리의 은사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성서의 은사들에 대해 갱신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건강한 조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우리의 동료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다.

은사에 대한 이런 강한 관심은 그것 자체에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은사 강박관념(망상)의 잘못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은사라는 것이 그들 자신으로는 끝이 아니라 끝이 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어버릴때 생겨진다. 우리의 매력은 그들을 주신 하나님에게 보다 우리의 은사에 있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봉사를 위해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며, 그런 은사들을 어떻게 발견하는지도 모른다. 앵겔과 노턴(James Engel and W. Norton)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영적 은사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교회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므로, 믿는자들이 경작해야할 근본적이 목회는 이런 은사들을 깨내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1)

I. 아가페 사랑

성령의 은사에 대해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사도바울의 경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랑-아가페사랑-이 어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그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 어떤 것 보다도, *아가페*는 우리의 목회를 특정지워야 한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아가페가 우리의 행동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희랍어는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있다:

사랑:

1. 필레오(Phileo)
2. 에로스(Eros)
3. 스토르게(Storge)
4. 아가페(Agape)

필레오 사랑은 형제적인 사랑이다. “필라델피아”는 ‘형제적인 사랑의 도시’라는 뜻이다. 사랑의 두 번째 종류는 에로스 사랑인데, 관능적인 사랑이다.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섹스를 의미한다. 에로스 사랑은 서로에게 매력적이다. 세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사랑인데, 혈육 사이에 사랑이다. 이 말은 신약성경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가페사랑이다. 만약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가페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일먼저 *아가페*는 자연발생적이다.2) 그것은 죄인을 사랑한, 완전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사랑이다. 만약 하나님이 단지 의인만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모두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인간으로서 표현하는 사랑과는 다르다. 우리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가페사랑은 다른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안에 보는 것에 의해 동기부여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발생적이다.

두 번째, 아가페사랑은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가페사랑은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측량함에 의해 가치를 정하는 특별한 잣대는 없다. 교육, 부유, 특권, 사회적위치, 그리고 아름다움(美)과 같은 그런 것들은 아가페 사랑에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

니하시고”라고 사도행전 10:34절은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가페 사랑의 렌즈를 통해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 번째, 아가페사랑은 *창조적*이다. 그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 안에 가치를 창조한다. 아가페는 가치-창조 원리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치, 자기-존경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 뭔가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랑 받는다고 인식하게 될 때, 많은 감정적 스트레스가 제거될 수 있다. 아가페사랑은 가치감(a sense of worth)을 창조한다.

네 번째, 아가페사랑은 *교제의 시작자*(initiator, 주도자)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창조자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다. 그의 사랑은 다리(a bridge)를 형성하려고 닿게된다.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닿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기독교가 있는 곳은 그의 백성에게 닿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하나님은 자비롭게 그의 자녀에게 닿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즐긴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사랑안에서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회가 이런 아가페 사랑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수립하려고 다가가는 우리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다섯 번째,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다*. 고전 13:8절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끝이 없다.

여섯 번째 아가페 사랑은 *함축적*이다. 그것은 율법을 성취한다. 그것은 율법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성취한다.

아가페

1. 자연발생적

롬5:5

2. 가치에서 차이 없음

롬5:8; 갈5:13

3. 창조적

갈5:13

4. 교제의 시작자

롬5:8

5. 영원하다

고전13:13

우리의 사역 각각을 특정 지우는 아가페 사랑은 자연 발생적, 가치에서 차이 없고, 창조적이고, 교제에서 시작자이고, 끝이 없고, 그리고 광범위한 사랑이다.

아가페는 “모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개념을 갖지 않은 그 무엇이다.” 그것은 “만약 그 자체가 홀로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다.”3)

II. 아가페를 표현하기 위해 배우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자신의 본성,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표현 할 수 없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단지 표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격의 실천이다. 그것은 의지가 포함된다. 바울은 “사랑의 법을 따르라”(고전 14:1), 또는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바울은 명령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침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5:1-2).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사기(copyists)*가 되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모방자(imitator)” 라는 말은 강한 어투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따르는 자 이상

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는 것인데, 모방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같이 되라는 의미이다. “사랑의 삶을 살라”고 바울은 말한다. 어떤 번역은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라고 되어있다. 걷는다는 것은 삶의 형태(mode)를 암시한다. 그것은 아가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삶의 스타일에 일관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또 추가적인 지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2-14).

12절에 언급한 옷은 속 코트 또는 속 옷(undercoats or undergarments)과 같은 것이다. 성서 시대에 이 구절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동방세계에서 바깥옷은 속옷을 붙잡아매는 그런 방법에서 단단히 둘러싸는 것이었다. 이 바깥 옷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만약 바깥 옷이 느슨해지면, 그 사람의 나머지 복장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크리스찬은 아가페 사랑없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바울은 “만약 당신이 아가페를 잃어버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라고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가페는 모든 것을 알맞은 균형과 알맞은 관계성으로 가지고 오게하는 자질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가페를 바깥 옷에 비교하며 중요성을 동등시켰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성령/열매를 보게되는데 크리스찬 삶의 개인적인 특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이 리스트에 들어있기에 그것은 다른 자질들(예 친절, 겸손)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아가페는 모든 다른 특징들의 전체(합계)를 서술하는 하나의 단어이다. 아가페는 단지 여러 가지 리스트들 안에 있는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것이 현존할 때에 포함되는 결과이다.

당신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당신의 목회의 한가지 특

질은 아가페 이어야한다. 기억하시라. 바울이 은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완료한 후에 그리고 아가페에 대한 그의 토론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는 썼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전12;31). 그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다.

	재 능	은 사
출처:	성령의 보편은혜	성령의 특별 은혜
주어진 때:	태어날 때	중생 때
성격:	자연적인 능력	영적인 수여
목적:	자연적인 수준에서 교훈, 연예, 영감	성도의 영적인 성장, 크리스찬 봉사

III. 은사란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에 우리는 목회에 대한 그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 레이 스테드먼(Ray Stedman)은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디자인된 영적인 은사로 당신을 구비시켰으며, 당신을 그런 은사들을 사역하기 위해 그가 당신에게 원하는 바로 그곳에 당신을 배치시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이것은 신나는 가능성들의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 세계 속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보다 더 만족하고 성취적인 경험은 없다.”

은사에 대한 토론에서 재능과 은사사이에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레슬리프린(Leslie B. Flyan)은 이런 식으로 구별지었다:

재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은혜라면, 은사는 믿는 사람들

에게 준 특별한 은혜, 또는 선물이다. 재능은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다. 중생때 주어지는 선물과는 대조적으로 재능은 자연적인 능력으로 이해되고 반대로 은사는 영적인 수여이다. 재능은 자연적인 수준에서 교훈, 연예, 영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은사는 구별된 영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믿는자는 성장을 위해서이고 크리스찬 봉사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위해서이다.5)

영적은사는 세 신약성서 서신서들속에 기록되어있다: 롬12;6-8; 고전 12;4-11,28; 그리고 엡 4:11.

[1]로마인에게 보낸 바울의 글:

롬 12;6-8: **예언, 봉사, 가르침, 격려, 주는 것, 리더십, 자비**

[2] 고린도인에게 편지

고전 12:4-11: **지혜, 지식 믿음, 치료 기적, 예언, 성령의 분별, 방언, 방언의 통역**

[3] 고전 12:28; **사도직, 예언, 가르침, 기적, 치료, 돕는 것, 행정, 방언**

{4} 에베소서에 바울(엡

4:11):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교사**

종종 마지막 은사는 하이퍼네이티드(hyphenated)은사, 목사-교사로서 언급된다. 은사를 나열하는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을 수 있다.

또 다른 은사정리를 레이훈(Ray Hurn)그의 지도자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발견하기위한 전략 매뉴얼]에서 제공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다.

케넷 킹혼(Kenneth Kinghorn)은 영적인 은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다:

롬 12:6-8	고전 12:4-11	고전 12:28	엡 4:11
예언 가르침 봉사 권고 주는 것 주는 도움 동정	예언 치유 기적 방언 통역 지혜 지식 믿음 분별력	예언 치유 기적 방언 통역 가르침 사도직 도움 행정	예언 가르침 사도직 전도 목양

엡 4장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롬 12장 예언
 봉사
 가르침
 권고
 주는 것
 인도하는 것
 자비를 보이는 것

고전 12 장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통역6)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가? 그것은 말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단지 19 가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숫자를 확신한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리스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모든 은사를 뚜렷이 이름 붙이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그의 은사목록은 우리로 하여금 목회를 발견하도록 확실히, 그리고 충분히 도와준다.

IV. 은사에 관련되는 위험

영적인 은사에 대해 공부할 때 관련되는 몇 가지 위험이 있다.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은사를 갖고있을 경우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것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몸에서 아주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히 있는 일이다. 또 다른 위험은 우리의 은사 이해에 대해 너무 빠져서 크리스찬 성숙을 향한 기본 단계(basic steps)를 무시하게되는 경우이다. 그것은 나의 은사에만 너무 많이 관심을 기울여 그리스도와의 매일의 동행에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이다.

또 다른 위험은 나의 은사가 당신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때이다. 첫째 그 은사는 나의 것도 여러분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다. 둘째, 우리는 단지 어떤 은사

들이 크리스찬 몸에 있어 더 눈에 띄기에 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전도의 은사에서 일어나는 경우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아주 눈에 잘 띈다. 그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누구도 전도의 은사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것이 모든 다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

또 다른 경고가 있는데 영적인 은사에 관련되어있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에서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 은사에 대해 연구하는데서 가장 최악의 일 중의 하나는 우리의 은사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 그분을 위한 봉사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은사를 공부하는 전체 목적을 방해하기도 한다. 은사는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그분의 봉사에서 사용하도록 주어졌다.

은사와 사역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하나님은 사역에서 실행될 수 있는 특수한 은사를 당신에게 주신다. 예를 들어, 환대(친절한 대접)는 은사이다. 당신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친절한데 당신의 사역이다. 당신은 당신의 집에 성경공부를 초청함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당신은 숙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짧은 기간동안이라도 그것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이웃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기 위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곧 당신의 사역이 될 것인데, 같은 은사(환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당신의 사역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단순한 그런 방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흥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 12:6, RSV). "working" 이라는 말을 주목하라. 그것은 때때로 “활기 띄게 하다”로 번역되었다. 레이 스테트먼(Ray Stedman)에 따르면 이 말은 다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은사가 특수한 경우에 있어 입증되거나 또는 사용함에 의해 생겨지는 힘의 정도이다영적인 은사의 모든 실행은 각각 같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주어진 같은 메세지는 같은 결과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는 항상 같은 결과를 산출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은사의 각 사역에서 얼마만큼 성취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7)

다른 학자는 “일하는 것(working)” 또는 “활기 띠게 하는 것”의 단어의 정의에 대해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는 그 단어를 “결과”로 번역한다. 킹혼(Kenneth Kinghorn)은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 은사는 설교, 글쓰기, 그리고 상담과 같은 그런 사역에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세 가지 각각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온다. 바울에 의해 언급된 “일하는 것” 또는 “활기를 띠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설교사역의 결과는 크리스찬 ‘개종’이 될 수 있다. 글쓰기 사역의 결과는 크리스찬 ‘성장’이 될 수 있다. 상담사역의 결과는 크리스찬 ‘일치’가 될 수 있다. 은사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그 은사가 사용될 수 있는 곳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사역들이 있다. 그런 세가지 사역들로부터의 결과는 모두 다르다- 개종, 성장, 그리고 일체감.

케넷 킹혼 박사(Dr. Kenneth Kinghorn)에 따르면 “결과” 또는 “일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질적인 것(qualitative)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이 스테드먼(Ray Stedman) 박사에게 있어 “일하는 것”이라는 말은 양적인 것(quantitative)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양쪽해석이다 가능성이 있는 뜻이다. 확실히 양쪽 차이들은 실제 삶에서 일어난다. 다양한 사역에서 우리 은사 활용의 결과는 종종 다르다. 우리의 할 일은 의미 있는 사역 분야에 우리의 은사를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확인해보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들이 나와있다(부록 B를 보라). 여기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은 우리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은사 발견은 평신도목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고했다: “영적 은사의 사용은 평신도의 역할이 감축될 때 줄어든다..... 성직자의 역할이 영적 은사에 의해서 서술된 목회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발될 때, 그런 은사들의 사용은 감소된다; 그래서 평신도의 부분도 그렇게 된다.”9)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영적인 은사들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의 책 [영적인 은사]에서 킹혼 박사(Dr. Kenneth Kinghorn)는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데에 6가지단계를 제안했다. 나는 여기에서 6단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또 당신을 위해 도표를 만들어 본다. 첫째, 그분의 사용을 위한 채널로서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열라. 둘째, 목회에서 크리스찬 봉사를 위해 당신의 갈망을 검토하라. 셋째, 교회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당신이 믿는 필요를 확인하라. 넷째, 봉사하고 사역하는 데에 대한 당신의 노력의 결과를 평가하라. 다섯째, 그리스도에게 순종으로 이끄는 그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여섯째, 다른 크리스찬들의 응답들에 예민하라.

아래의 도표에 있는 숫자는 위에 설명한 여섯가지에 부응한다. 써클 안에서 “NO.1”에 당신이라는 단어를 써보자. 그분의 사용을 위한 채널로서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열라.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데 첫 단계는 태도적

인 것이다. 봉사하는 데에 또는 하나님께 사역하는 데에 관련되는 당신의 태도는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당신이 맞는 곳을 알기 원하는가? 당신은 정말로 그분께 명예를 드리기를 위해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기 원하는가? 만약 당신의 응답이 “예” 라면, 당신은 2 단계로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제안을 도표로 그려보자.

2 단계는 한 단어 갈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목회를 위한 당신의 목표와 당신의 갈망은 무엇인가? 만약 내가 마주 앉아서 “하나님을 위해 당신이 가장 성취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루어지기 바라는 3-4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바램은 당신의 은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사람들의 목표와 바램은 일반적으로 이런 목표에 닿는데 필요한 은사들과 관련되어있다. 당신의 목표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은사는 당신이 실제로 가지고있는 은사이다.

세 번째 단계를 보자. 여기서 주요 단어는 “필요들”이다.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그리고 더 크게 크리스찬의 몸을 둘러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요는 무엇인가? 크리스찬 몸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가? 당신이 당신의 회중에서 보는 가장 큰 필요를 종이에 적어 보라. 한번 더 말하지만, 그런 필요들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은사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것이 강한 가능성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당신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은사를 확인해주는 목회 필요에 더 예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는 우리교회 안에 평신도목회자들에게 “이 교회에서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인가”라고 물어 보았다. 무슨 일이 날지 추측해 보라.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 전도에 대해 엄청나게 강조하기 시작했다. 환대(접대)의 은사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들을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적인 필요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보다시피, 어떤 사람이 교회안에 필요들을 검토할 때 그 사람은 그가 가지고있는 은사들을 가장 잘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필요들을 보

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가 소명(부름)을 꼭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서 특별한 필요를 보지만 내가 그것에 꼭 응답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본 모든 것에 대해 응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지나친 헌신(over-committed)이 될 것이다. 교회사역에 지나치게 헌신한 사람들은 곧 지치게될 후보자들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단지 그들 자신을 지나치게 헌신하며,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역에 포함되기를 거절한다. 이런 경고가 필요한 사람들은 특히 도움과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 주위에 많은 필요들을 보려고 하여, 그래서 즉시 지나친 헌신을 하게된다.

네 번째 단계를 보자. 여기서 주요 단어는 “결과” 또는 “흔적기록”이다. 여러분의 목회(사역)의 결과 또는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존 웨슬레는 평신도 설교자들을 모집할 때에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 그들의 회심(개종)이 확실한가, 둘째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확신하는가. 세 번째는 이런 목회(사역)를 위하여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의 사역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했다. 그들은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그들은 은사를 사용함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있는가?

당신의 목회(사역)에 대한 결과를 측량하는 방법을 제시해도 되겠는가? 우선 당신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역들을 정리해 보라. 이런 사역들의 옆에 1-5사이에 숫자를 써 보라. 5는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4는 좋은 결과, 3은 괜찮은 결과, 2는 안좋은 결과, 1은 “말하고 싶지 않다”이다. 이렇게 해봄으로, 당신이 가장 효과를 거둔 사역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런 사역들에 어떤 은사를 사용하였는가?”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령에 인도하심으로 당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고있는가? 당신은 어떤 특별한 열린 문을 느끼는가? 또는 목회에서 닫혀진 문을 알 수 있는가? 그분이 어떤 의미있고 새로운 신나는 사역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가? 만약 그

렇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좀더 살펴보게 할 것이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의 대부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줄 방법은 [열린 문 정책(open-door policy)]이다. 어떤 문들은 열리려고 하고, 그리고 넓게 열리고, 반면에 다른 문들은 유동성이 없이 잠겨져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선택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6번째 단계를 살펴보자. 여기서 주요 단어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공동체”란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인 우리의 형제, 자매를 의미한다. 만약 당신의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는 몇 사람에게 당신이 소유하고있는 은사를 평가해보라고 요청한다면, 무엇이라고 그들은 말할 것인가?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특정한 은사를 확인해줄 수도 있다: “헤이, 당신 기억해!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정말 놀랍더라. 너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유익했어. 그리고 너는 듣기 쉽게 해주었어.” 그것이 당신의 은사를 확증해주는 그들의 방법일 수도 있다.

또는 당신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 “헤이, 데이브, 당신은 주일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이해 해. 내가 친구로서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나는 네가 몇 가지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아왔지. 심방 팀과 함께 가정방문 할 때를 보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너도 잘 알잖아. 내가 너의 은사를 생각해 보건데 주일학교보다는 가정 방문 팀에서 사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애. 네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 그러나 내가 믿기로 너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애. 그리고 너는 우리의 방문팀에서 그것을 효과있게 사용하고있어.”

데이브의 친구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브의 친구는 그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보이지는 않다는 것을 입증해주면서 그를 확증해주는 큰일을 한 것이다. 만약 데이브가 그의 친구 말을 귀담아 듣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큰

고통과 고민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데에 제시한 6단계를 사용한다면, 당신은 다음의 질문들이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1.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데에 마음이 열려있는가?_____

2. 목회와 섬김에서 당신의 목표와 갈망은 무엇인가?

3. 당신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4. 당신이 목회하고 봉사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인가?

5. 당신의 영적인 순례의 이 시점에서, 당신은 성령께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은사를 확증했다는 것을 느끼는가? 그것을 잠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은사들을 당신에게 나타내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라

6. 다른 크리스찬들(당신을 잘 알고 있는)이 당신안에 있는 어떤 은사들을 확증하는가?_____

VI. 당신의 은사, 사역, 그리고 성격

훈련의 한가지 중요 부분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격이 그들의 인격들(성격들)이 사역에 어떻게 관련짓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은사와 성격사이의 관계성은 중요하다. 예를들어, 전도의 은사를 가진 두 사람의 경우, 그들의 성격에 근거하여 다른 방법들에서 그 은사가 입증된다. 만약 그 은사가 “무엇(what)”이라면 성격은 “어떻게(how)”를 나타낸다. 개인의 성격은 어떻게 그가 일을 성취할 것인가를 말해줄 것이다. 우

리가 성격의 차이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비록 같은 은사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리자신과는 다른 스타일에서 사역할수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인식할 것이다. 요약해서, 성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지적해준다.

우리가 우리은사의 독특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배치하는 독특한 방법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우리 식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피할 수가 있다. 우리의 은사의 독특성과 그들을 활용하는 독특한 방법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은 우리가 비슷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을 막아준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같은 방법에서 은사를 사용해야한다고 또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평신도들을 훈련시킨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평신도는 지배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융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배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일을 올바르게 하지만 자기 식으로하기를 원한다. 대조적으로 융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세한 것에 흥미를 가지려고 한다. 그들은 지침서에 잘 따른다. 그들은 모든 것이 글로 쓰여져서 제시되기를 바란다. 그들의 성격에 맞게끔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평신도들이지만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격이 그 은사를 아주 다른 방법으로 보여지도록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양성에 적합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평신도들이여, 어떤 사역을 선택하는 것이 단지 당신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초적인 성격을 확증하는 방법에서 그 사역을 수행하려는 당신의 충분한 범위를 허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토론 질문

1. 영적 은사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2. 재능과 은사 사이에 차이는 무엇인가?
3. 어떤 지침이 우리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가?
4.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영적 은사를 갖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가?
5.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는가?
6. 영적인 은사를 확인하는 것이 당신 교회의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제 5 장 목회를 위한 훈련

I. 평신도훈련을 위한 계획

만약 평신도가 열매있는 목회에 동참하려한다면, 훈련은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안에 중요한 역할을 성취하기 원하지만 훈련을 제공치 않는 목회자들을 많이 본다- 그것은 불공평하다.

평신도목회에 대해 균형있는 안목은 목회에 부름받고, 또 목회를 위한 은사에만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위해 훈련도 강조하는 것이다. 평신도 사역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이든지 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목회는 자동적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엄격한 조직화(편성)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훈련과 표현을 위한 길(수단)은 필요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그들의 목회를 위한 평신도의 훈련은 거의 차선책(low priority)이 되어있는 것을 보게된다. 만약 우리가 평신도목회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훈련은 과거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갖지 않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신도 훈련은 “의도적(intentional)”이어야 한다. 평신도훈련 이라고 이름 붙여온 많은 것들이 특별한 디자인에서가 아니라 나태(태만)하게 시행되었다. 평신도 목회 훈련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들, 목표들, 그리고 방법들이 디자인되어야한다. 평신도는 목회에서 부수적인 일을 하기 위해 훈련되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베다니 침례교회의 담임목사 폰더 질리랜드(Ponder W. Gilliland)는 1990년에서 1998년까지 8년 동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냈다. 여기 그가 발견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 5가지를 써본다:

1.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는 서

로 서로,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모여 그에 의해 터치되고, 그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깊이 터치하는 곳)

2. 치료하는 교제가 되기 위해 (각 사람이 전체성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전체 인격에 목회하는 곳)

3. 구비시키는 센터가 되기 위해 (평신도가 목회를 위해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구비되는 곳)

4. 전도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예수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으로 오클라호마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닿으려고,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초청하기 위해)

5 배치시키는 기관이 되기위해 (우리의 사람들을 오클라호마 중심 속에 보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돌봄 받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사명“ 5가지 중에 평신도 훈련에 관한 것은 몇 가지나 되는가. 특히 3, 4 그리고 5번이 의미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요청한다. 이 목회자는 평신도목회 개발을 8년 간에 걸쳐 주요항목으로 만들었다. 만약 그것이 일어나게 하려면 평신도 훈련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디자인에 의해서 생겨져야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훈련시키려고 조직적이고 잘 개발되고 분명하게 꿈꿈이 준비된 방법을 가지고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훈련“ 이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그들은 ”훈련“이라는 말이 비록 목회가 뭔가 라오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본질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평신도구성(laity formation)“ 이라는 용어를 좋아한다. 평신도 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성직자의 역할이 훈련시키는 것으로서 언급된다면 그들은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구별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느끼기를 어떤 사람이 다른 이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

랫사람에게 행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A.W 키스트(Kist)에 따르면 “현대 평신도 훈련은.... 지도자와 그의 청중 사이에 사랑의 일방통행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 훈련 또는 평신도 구성(배치)은 훨씬 더 그것 이상의 상호 교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평신도 훈련의 중심부에는 두가지 가정이 있다: 첫째,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그들의 주인(masters)이 아니라 그들의 종(servants)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 목회 훈련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식으로 가르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구비시키는 자들”을 필요로 하는 평신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런 구비시키는 자들은 대개 목사들인데 그들(평신도)로 하여금 목회에 그들이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목회를 위해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하고, 그 목회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목회를 위해 훈련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현재 평신도목회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의 현재 훈련뿐만 아니라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래 질문에 답을 적어 보라;

평신도 훈련 양케이트

1. 평신도들로 하여금 목회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2. 은사 발견에 대해 어떤 훈련이 평신도들에게 제공되어왔는가?

3.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들이 가용(available) 될 수 있는가?

4. 모든 평신도들에게 가용될 수 있는 평신도목회 기회들의 총체적인 리스트가 있는가?

5. 평신도는 그들이 동참되는 목회들에 대해 전반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가?

6. 교회안에 있는 평신도 사역들과 제공된 훈련들을 나열해 보라

사역	훈련	훈련기간

7. 목회를 위해 평신도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역들은 무엇인가?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할수 있는가?

사역	잠재적인 훈련

8. 7번에서 언급된 잠재적 훈련을 시키기위해 해서는 어떤 은사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하는가?

사역

사람

II. 구비시키는 자와 훈련과정

몇년전에 평신도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동안, 어떤 목사님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되었다. 그는 느끼기를 만약 평신도에 대해 그들이 사역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역들을 위해 훈련되어야한다면 우리는 곧 목회의 일을 그만두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분의 말을 한참 생각했으며, 왜 내가 말한 것에 대해 그렇게 오해했을까. 그때로부터 나는 세미나의 초점을 바꾸었다. 평신도 목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파트너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목사와 평신도는 목회에서 *동역자*이다. 그것이 바로 이책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이다: 목회에서 동역자(Partners in Ministry)

평신도 목회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다는 뜻이다. 평신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교회는 목사의 높은 교리에 동등하게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평신도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사역들이 되게 하자면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역들에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한다. 누가 그들을 위해 그것을 제공할 것인가? 누가 그들을 구비시키는가? 누가 그들로 하게 할수 있게 하는가?

분명히 그것은 담임목사의 역할이다. 목사는 사역에 대한 성서적인 요청을 강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는 그들로 하여금 은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는 단계들을 통과하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다.

그들이 효과적인 사역자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행정을 담

당하는 사람은 그들의 담임목사이다. 모든 효과적인 평신도 사역자는 그의 담임목사에 의해 제공된 훈련과 격려에 달려있다. 평신도 목회는 어떤 반동주의자나 반 성직자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담임목사와의 더 가까운 사역관계성 속으로 평신도를 데려오는 운동이다!

A. 구비시키는 자들을 위한 지침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목회는 뭔가 교회안의 전문적인 사역자들(담임목사, 부교역자)을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의 기능에 의해서 구별된 목사는 평신도들도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말씀(Word)을 가르치도록, 그리고 목회를 위해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해주는데 부름 받았다. 성직자 또는 목사는 평신도가 목회를 위해 훈련받고 구비되는 채널을 제공한다.

성직자는 목회자만(*the ministers*)이 아니라, 그들은 사역자들의 *훈련자들(trainers)*이다. 회중은 한명의 목회자와 200명의 성도로서 구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200명의 잠재적인 사역자들(또는 목회하는 평신도들)과 한명의 구비시키는 자(또는 목회적인 사역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사람은 하계 하는 목회(*the ministry of enablement*)에 부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사역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나 평신도 목회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또한 목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평신도 목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시하는(*facilitate*)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이다. 평신도 목회를 그의 담임목사와 멀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평신도는 구비시키는 자(*equipper*)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신도 목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즉 라오스(*Laos*)를 불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에드윈 린버그(*Edwin Linberg*)는 구비시키는 자로서 성직자에 대한 박사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성직자가 하게 하는 자(enabler)로서 역할을 할 때,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부분으로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 책임을 질 것이다..... 목사를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사역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릎 쓰는 성직자는,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목사에서 있어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평신도의 능력에 만족이 있을 것이다.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의 실현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2)

린버그(Linberg)는 구비시키는 자로서 사역을 의식적으로 실행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1. 그는 목회에서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2. 그는 경험을 통한 배우기(experimental learning) 과정에 사람들을 포함시키는데 필요한 기술들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그는 성도들의 모든 상황, 관계성, 만남,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창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관계성은 배움과 성장을 위한 잠재적인 기회이기 때문이다; 4. 그는 직업적인 목사의 근본역할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책임적이 되는 것에 대해 지적이고 언어적인 동감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써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사역에 실제적인 실천으로 옮기게 하는 “연결(link)” 또는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5. 그는 그들의 목회를 실행함에 훈련이 되어서 평신도 목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때 단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향을 확장시키는 것이다.3)

구비시키는 자들을 위한 몇가지 기초적인 지침들이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목사들로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 한가지 간단한 지침은 성도들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용어들을 알

맞게 사용토록 격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1장에서 얘기했다. 예를 들어 “사역자(minister)”라는 용어를 보자. 만약 평신도들이 회중속에 한 사람을 사역자(*the minister*)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자신들은 사역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자”라는 용어를 더 성서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 모두가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역들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한다. 목사로서 우리는 목회적인 사역에 부름 받았다; 평신도로서, 우리는 다양한 평신도 사역들에 부름받았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그 용어의 성서적 의미에서 진실로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2. 구비시키는 자에 대한 또 다른 지침은 직업적인(세상에서의)사역들을 확증하는 중요성이다. 모든 평신도들은 단지 그들의 교회 적인 사역들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직업적인 사역들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다. 목사로서 우리는 교회내의 일에 깊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신도는 교회 안의 생활 속에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산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가 잊으려고 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로 살아간다.

3. 구비시키는 자들은 그들의 구비시키는 잠재력을 위해 모든 교회 사역들을 평가해 보아야한다. 당신의 교회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 당신의 사람들을 특수하게 구비시키고있는가? 어떤 기능들이 평신도들로 하여금 라오스(*Laos*)가 되도록 구비시키기 보다 교회의 본질에 더 부응하는가?

4. 구비시키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비시키는데 있어서 그들을 도와줄 은사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야한다. 나는 훈련 과정에서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한다. 우리교회의 목양 담당 목사가 평신도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떤 측면에서 나를 도와 주었다. 그는 병원방문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금방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에 대해 그들을 구비시키는 데에 나를 도와주었다. 또 다른 인도자가 상담측면에서 우리 평신도목회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는 어떻게 내담자를 전문가

에게 잘 소개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창조적인 경청자가 되느냐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우리 성도중의 성공적인 사업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상담방법을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가르쳤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의 분야에서 더 전문가들이다. 모든 교회는 구비시키는 과정에서 목사를 도울 수 있는 달란트 있는 평신도들이 있다. 비록 우리는 목사를 구비시키는 자로 말하지만 더 정확히 말해 그는 구비시키는 것이 완료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은사 있는 평신도들은 구비시키는 과정에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5. 구비시키는 자를 위한 또 다른 지침은 훈련시키는 과정은 *하는 것(doing)*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단지 교실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기에 우리는 실제 삶에서 우리가 참여한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발견하게된다. 어떤 훈련이고 간에 교실에서의 경험과 실제사역(on-the-job)경험사이에 균형을 포함해야한다.

몇 년 전에 나는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세 팀을 평신도목회자로 훈련시켰다. 첫 번째 그룹은 그들이 평신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의 8개월간 훈련 시켰다. 두 번째 그룹은 4개월 정도 훈련시켰다. 세 번째 그룹은 한달 간 훈련 이후 사역이 시작되었다. 왜 나는 이렇게 서둘러서 과정을 진행했는가? 나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루는 평신도목회자 훈련시에 한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한참 같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 계속 공부하고.....평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 없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그들은 현장 경험(on-the-job experience)없이 너무 오래 동안 교실 경험을 갖게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동료로서 서로 즐기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목양 하는 데에 충분히 몸에 베이도록 하는데는 실패였다. 어떤 훈련프로그램이든지 효과적이 되려면 단 교실에서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doing)*이 포함되어야한다.

B. 훈련과정

훈련과정은 적어도 5가지 독특한 단계가 포함된다.4) 구비시키는 자는 이런 단계들 사이에 균형을 이해해야한다. 첫 번째는 *연합(association)*이다. 이것은 당신이 훈련시키는 사람들과 단지 함께 해야(being with)한다는 의미다. 의미있는 평신도 목회를 위해 훈련받는 사람은 당신을 그들의 구비자 이전, 한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헌신되는 정도에 따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평신도 목회 훈련은 구비시키는 자와 구비되는 자 사이에 가까운 관계성의 결속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나누어 줌(impartation)*이다. 이것은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how-tos)" 하는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훈련 단계는 “교실단계”라고 이름 붙여질 수도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지교수(demonstration)*이다.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듣기만으로 배우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by watching) 배운다. 나는 증인이 될 필요에 대한 설교를 들음으로 나의 믿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 나는 나의 동료들 중 하나가 그의 믿음을 나누는 것을 보고 배웠다. 나는 그가 하는 것을 몇번이고 다시 보았다. 결국 그것은 내 자신의 삶(lifestyle)의 일부분이 되었다.

훈련과정에서 네 번째 단계는 *파견(delegation)*이다. 이것은 임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목사들에게는 하기 어려운 일 일수도 있다. 그러나 평신도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은 중요하며 그들에게 성공뿐만 실패에 대해서도 자유로와 지도록 해야한다. 이 단계에서 평신도는 만약 그 사역이 잘 완료되려면 그것은 그들에 의해 완료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신도가 그들의 사역을 함에 있어 실패할 때마다 목사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훈련시키는 목사는 없다.

5번째 단계는 *지도감독(supervision)*이다. 이것은 감독한다는 뜻 이상이다. 그것은 사역이 완료되도록 책임지고, 또 도와주는(monitoring)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책임을 세우는 목적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III. 평신도 목회훈련에 방해되는 것들을 극복하기

교회에서 평신도목회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에 방해될 수 있는 몇 가지 장벽들이 있다. 그것들 중의 몇 가지를 얘기해보자. 우리는 지금 분류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 중 목사님들을 성도들로부터 분리한다는 얘기이다. 이제 우리는 평신도목회 훈련에 대해 질문해보려고 한다. 목사들이여, 여러분은 “목사들에 대한 답” 부분에 대한 것을 읽을 것이다. 평신도들이여, 여러분은 “평신도들에 대한 답” 부분을 읽을 것이다. 바뀌어서 읽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호각을 불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을 읽으라.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장애물 1번: 어떤 목사들은 평신도 목회의 사상(thought)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목사들에 대한 대답:

목사들이여, 우리가 두가지 것에 대해 혼동하기 쉽다: “평신도의 해방”(liberation of the laity)”은 평신도를 사역에 해방시키는 것이지, 그들을 무질서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목회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은 그들의 평신도들이 교회의 삶에 있어 불필요하게 주장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목회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를 활용토록 해주는 것(liberating)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회를 성취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신의 목회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 자신의 봉사를 위해 당신의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는 것에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증대될 것이다. 목사들은 평신도목

회의 개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평신도에 대한 대답:

평신도들이여, 목사들이 가끔 두려워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어떤 교회들에서 평신도들이 너무 주장적이 되어 목사가 리더십의 은사를 실행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는 평신도 목회에 대한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 당신 은 목회에서 당신의 목사와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당신의 목사가 알도록 하면서 당신의 목사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목사가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는 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의 목사가 알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 단지 당신의 은사뿐만 아니라 또한 목사의 은사도 최대화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위협받는 목사가 아니라 또한 성취하는 목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 아주 평범한 측면에서, 당신은 담임목사와의 관계성을 즐길 것이다.

장애물 2번: 어떤 목사들은 평신도 목회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느낀다.

목사에 대한 대답:

목사들이여, 이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다. 학부나 신학교의 모든 가르침에서 대부분의 우리는 그들의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알맞은 훈련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직업적인 성직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목회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니었다. 우리가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나는 목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개의 신학교에 다녔다. 전부다 좋은 기관

이고 좋은 학교였으며 또 함께 했던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훈련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목회를 해가면서 배우고 있다.

목회자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중에 하나는 정직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한 목회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의 평신도목회자들에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고 그들에게 고백하곤 한다. 나는 경험을 많이 하였다. 어떤 경험이고 간에, 거기에는 어려움과 잘못이 있다-특별히 잘못. 나는 그들에게 나에 대해 인내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목회를 위해 그들을 가장 잘 구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을 배우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훈련과정을 위해 부적합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부적합성을 부정하거나 감추려고 한다면 평신도들은 이해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고, 그리고 목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평신도에 대한 대답:

평신도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목사들에 대해 인내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 중에 어떤이들은 목회를 위해 당신을 훈련시키는 방법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 만약 당신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의 실천/경험에서 실패하는 것에 자유롭도록 허락 해준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더 잘 훈련시키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다른 말로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에 대해 인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 여러분을 더 잘 훈련시키는 방법을 정말 배우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회를 위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종종 부적합하다는 느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평신도 목회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의 신학교 교육에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우긴 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 그 신학교육을 우리의 교회들 속에 정말 실천하기 위해 또 배우는 것(relearning)이다.

장애물 3번: 어떤 목사들은 평신도 훈련은 필요치 않다고 느낀다.

목사들에 대한 대답:

나는 에드윈 린버그(Edwin Linberg)의 학위논문을 빌어서 이것에 응답해 보려 한다:

“내가 이 논문을 시작하면서, 나는 나의 경험을 뒤돌아 보는데 신학교에서 교육받고 전도사생활하고, 첫 목회지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템플시에 있는 템플교회에서 6년반 동안 목회하고 있다. 나의 경험을 상기해보는 것은 지난 20여년 사이에 교회안에 알려져 있는 교회의 갱신(renewal)에 목말라하는 나의 느낌들을 생각나게 해준다.

나의 기본적인 확신은 이런 과정에서 생겨진 것인데 교회갱신이라는 것은 목사가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거나(unwillingness), 그렇게 할수 없기에(inability) 그런 바람과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술의 부족이나 조심스런 선택을 통하여 목사는 평신도에게 그들의 목회를 충분히 실행

토록 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 만약 훈련이 필요치 않았다면, 그들은 평신도들로 사역에 참여토록 하는 기회들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을 쓰면서 교회갱신에 대해 목말라함은 목회에 대한 평신도들의 어려움이다. 그것에 대한 책임들을 갖는 것에 대해 실패함보다도 성직자에 의해 더 방해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나는 이것을 내 논문에 이렇게 썼다: “만약 평신도, 하나님의 전체 백성은 목회는 하나님의 전체 백성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성서적 유산의 입장에서 목회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고, 성직자는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할 수 있게(enabler) 하는 사람(enablers)이 되어야 한다.”5)

린버그(Linberg)의 말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는 제안하기를 “평신도의 문제”는 사실 평신도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성직자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평신도들이 의미있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목회에 포함되도록 그들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기(take action)보다 평신도목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더 쉽다. 나는 지금까지 평신도목회의 중요성을 말로 얘기하지 않는 목사는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말하건데 목회를 완수하는데 포함되는 평신도를 위해 양육하는 과정을 전혀 제공치 않는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우선권 중에 충분히 높은 곳에 위치시키지 않고 있다

평신도에 대한 대답:

평신도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의 앞길에 놓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들의 하나이다. 만약 여러분의 목사가 평신도목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하는데 사실 당

신이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나는 여러개의 평신도들 그룹에 초청받아 평신도목회에 대해 세미나를 하였다. 나는 약간 주저함이 계속 있었는데, 왜냐하면 듣는 그들(평신도)은 너무 좋고 가능성을 가지지만 막상 교회에 돌아가서 담임목사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허탈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목회를 위한 훈련된 평신도를 보기를 정말로 원하는 목사들을 갖는 평신도들은 사실 행운이다. 그러나 때때로 평신도들은 목회에 포함되는 방법에 대해 격려 받지 못한 입장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만약 당신의 목사가 평신도목회훈련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격려하겠다: (1)당신의 목사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라; (2) 당신의 관심을 나누기위해 당신의 목사와 만날 약속을 하라; (3) 당신의 목사에 대해 포기하지 마라. 우리목사들은 변화될 수 있다; (4) 개혁 운동가가 되지 말라; 목사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 당신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 (5) 기다림의 영적인 은혜를 배우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그들을 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내가 믿기로 만약 그들이 따른다면, 그들은 엄청난 배당금을 돌려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바랬던 결과를 산출할 기회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장애물 4번: 어떤 평신도들은 평신도목회 훈련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목사에 대한 대답:

목사들이여, 우리는 평신도들이 “이것이 목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목사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월급을 주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제임스 케네디 박사(Dr. James Kennedy)에 따르면 평신도들은 “조지 목사가 하도록 해! 그가 봉급을 받잖아” 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평신도

들은 그들이 목회자들이고, 그들은 목회들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디어에 대해 단순히 놀라곤 한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라.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라. 그것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과 하라.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서 작용되고 있는 의미있는 평신도목회를 보도록하라. 이것은 우리 어떤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두려움을 더 해결해줄 것이다. 그것을 단순히 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중요한 목회훈련에 당신과 함께 할 사람들을 찾도록 하라. 때가 되면 위협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들은 또한 목회자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배울 것이다.

평신도에 대한 대답:

평신도들이여, 당신들 중에 어떤이들은 평신도 목회에 대한 토론에 의해 별로 위협을 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떤이들은 사실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사역에 포함되기를 주저한다는 것을 당신의 목사가 인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아마 과거에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려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는 당신이 사역에 동참되었다가 실망하거나 낙담한 경험을 겪었을 것이다. 당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 평신도목회는 깜짝 놀라게 하거나 또는 반감을 갖게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어떤 경우이었던지 간에, 나는 당신에게 뭔가하도록 격려하려고 한다. 당신의 목사와 개인적인 시간 약속을 하여 그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라. 당신의 느낌들을 나누라 그렇게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려운일 일수도 있지만 한번 더 노력하기 바란다. 당신의 목사에게 “당신과 손을 잡고 훈련과정을 통해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라. 사역에 포함되기 시작하는 것에 도움

이 매우 필요하다고 당신의 목사에게 말하라.

당신의 두려움은 아마 정상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두려움이 사역에 임하는데 당신을 절룩거리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특수한 사역을 위해 그분에게 의해 독특하게 은사 받았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목사에게 가용하게(Available)되어 당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목회의 경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실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종종 성공하는 방법은 실패 속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방해물 5번: 어떤 평신도들은 부적합하다고 느낀다.

목사에 대한 대답:

목사들이여,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해하기 수월해야한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하기 원하는 목회를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목사들이여, 당신이 첫 번째 설교할 때를 잠시 되돌아보라. 대부분의 당신은 적어도 어느정도의 훈련은 받았다. 그러나 아직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학부에서 4년 석사과정에서 3년을 훈련받았다. 그러나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주간은 두려움에 쌓여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많은 평신도들은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 놀라게되는 이유가 더 많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일을 하도록 요구되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도움은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평신도가 부적당함을 느낀다고 생각지말라. 어떤이들은 지나친 확신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나는 훈련이 필요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이다.

목사로서 우리에게 위험은 그들의 말을 잘못 해석하여 그들은 목회에 동참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버린다. 통상적으로 그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들이 그 사역에 ‘아니’ 라고 말 할때에, 그들은 종종 ‘NO’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해야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또 한가지 실마리는 “그러나 나는 단지 평신도인데” 라는 말을 당신이 들을 때이다. 그런 말은 부적합하다는 느낌을 당신에게 주는 신호이며 사려 깊고 조직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다는 뜻이다. 이전 장에서 보았듯이 감리교 운동의 성공은 적합한 훈련, 알맞은 동기부여를 받은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수행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평신도들에 근거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의 전체 사역에서 의미있는 곳을 가질 수 없는 평신도는 당신의 회중속에 없다.

평신도에 대한 대답:

평신도들이여, 당신이 부적합하게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다. 우리 모두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때에 그런 느낌을 갖는다. 폴 클레델(Paul Cladell)은 그의 책 세이틴 슬리프 (The Satin Slipper)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나님은 굵어진 선으로 똑바로 쓴다.” 내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는 말했다고 본다. 당신은 바로 그 분이 당신을 통해 확실히 성취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부적합하게 느끼는 것은 오히려 그분께 당신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당신을 평신도목회자로서 효력있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달란트나 부적합의 느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그

래서 그분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평신도로서 평신도목회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부적합성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목사에게 말하라. 당신의 목사로 하여금 당신이 목회에 동참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부적합성을 느끼는지 알게 해야 한다. 당신의 목사가 이해하는 것을 당신은 보게될 것이다., 당신의 목사는 당신을 도울 수 있다. 당신의 목사는 당신을 도울 것이다.

목사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 우리는 기꺼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 당신은 친절할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목사로 하여금 알게 하라. 확신과 경쟁력은 훈련과정 후반부에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적합성의 느낌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장애물 6번: 어떤 평신도들은 훈련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목사에 대한 대답:

나는 CCC에서 사역할 때 평신도를 간증훈련 시킨 적이 있다.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헌신적이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본적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방면에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표현했다. 나는 전도훈련이 그에게 정말 도움이된다고 느꼈다. 내가 그에게 그런 훈련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말했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가기 싫어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혹시 다른 교회에 가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훈련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로 그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믿음을 잘 나누는 방법을 모르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훈련은 근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장애물에 부딪칠 때 목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고 목회의 현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 인식치 못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어려울 경우도 있다. 평신도가 바램을 표현하거나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자마자 그 다음에 당신은 조직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데는 위험이 있다. 가끔 훈련을 거절하는 평신도들은 그들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 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경우들에서 내용들을 추출해 내는 것은 별로 재미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모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때가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훈련을 받기 싫어하는 평신도들은 모두가 지나친 확신을 갖고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훈련의 가치를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회를 위해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흥미를 갖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훈련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 가끔 엄청나게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어떤 사역에든지 들어갈수 있으며 또 좋은 결과를 경험 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들은 인정될 필요가 있다. 모든 평신도들이 훈련받기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은 원한다.

목사로서의 임무는 훈련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필요성을 인식하고있는 그런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평신도들이 목회에 그들의 부름을 인식하고 목회를 위한 그들의 은사들을 인식하고있다면, 그들이 그 도구를 갖고 닦아야된다(훈련의 기간)는 필요를 인식하는 것은 거의 당연시되고 있다.

평신도에 대한 대답;

아마도 여러분 중 거의 대부분은 이런 장애물을 잘 확인치 못할 것이다. 능동적인 평신도 여러분은 당신의 목회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비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저항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 여러분을 돕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있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당신의 아마 맞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목사는 다른 많은 교회 상황에서 겪은 그의 경험과 배운것에 의해 당신을 상당히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이 훈련을 저항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다음은 아놀드(Arnold Come)가 경고한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교회성도들의 대다수가 교회가 단지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있다고 주장한다.....교회의 “돌보는(care taker)” 역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선교를 위해 평신도를 훈련시키는데 염려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훈련프로그램을 조직하고있는 목회자는 곧 두가지 회중을 발견한다-응답하는 소수, 그리고 교회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위해 그런 "새로운" 해석에 강하게 저항하는 대다수. 6)

다른말로, 위의 진술에 따르면 너무나 많은 평신도들이 그들 자신이 목회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목회를 받는 사람이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바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할때에야만이 바뀌어질수있는 것이다. 우리는 평신도인 여러분에게 우리목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서든지 여러분을 협조하고 돕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

다.

우리가 평신도 훈련에 대하여 얘기할때에, 목사는 모든 말을하고 당신은 평신도로서 모든 것을 듣기만하는 그런식의 [이야기 독 차지]식을 언급하는것이아니다. 그대신에 우리는 같은 목적에 헌신한 사람들 사이에 질적인 관계성에 대해 얘기하고있는 것이다. 그목적은 구비되는것이고 당신으로하여금 가능한 최고 열매가 맺히는 사역을 즐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른말로 평신도 목회자로서 당신에게 훈련이 중요하다고 설득하려는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중하게 은사를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그런 은사들을 활용할수있어서 성취되는 경험을 갖기를 바래서이다.

IV. 알맞은 사역을 발견하기

우리는 평신도목회의 장애물들에 대해 장구하게 얘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맞은 사역을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어떤이가 훈련받기 이전에, 그는 그 선택을 해야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은사를 극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을 발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찾으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최상의 기능을 하기 위해 특별한 사역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선택과정을 시작하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들 중의 하나는 당신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역을 적어보는 것이다.(아래 도표를 보라)

나의 은사: 가르침

나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역들:

1. 주일학교 교사
2. 가정성경공부 교사

3. 청소년 캠프

4. 여름성경학교 교사

당신의 사역을 발견하는데 당신을 돕기 위해 우리는 팀 브랜차드(Tim Blanchard)의 책 <당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를 추천한다. 여기에서 팀은 많은 은사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다.(부록 A를 참고. 그것은 팀의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많은 평신도들이 그들의 은사를 활용할 사역들을 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도 있다. 당신의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터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은사가 가장 잘 맞는 사역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알맞는 사역을 발견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역으로 하는 것이다. 당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원사역위치들을 정리해보는 것이다:

사역들:

주일학교 부장

주일학교 재정부

주일학교 서기

재직위원회

헌금위원

안내위원

간호역할

성경공부인도

성경공부 안내/모집 자

당신이 이런 리스트를 보면서 이런 목회위치를 채우려면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써보라. 또는 위의 사역들 중에 당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적어보고 그런 은사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가라. 어떤 경우에는 당신의 목사일수도 있다. 지도를 받도록 하라.

만약 당신의 목사가 사역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은사를 갖고있다고 본다면 그것에 표시하라.

나의 사역 장소를 발견하는" 세미나

몇 년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나는 “내 사역장소를 발견하는”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다. 이 세미나의 목표는 평신도들에 다음을 돕기 위함이다: (1) 사역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2) 사역에 대한 그들의 은사를 이해시키고; (3) 교회안에서 자원봉사 위치에 친숙하도록 하고; (4) 그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5) 우리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의 책임자들을 알고; 그리고 (6) 적어도 한가지 사역을 선택하여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는 경험을 시작하도록 한다.

V. 평신도훈련의 단계들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 아래의 단계들이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완전한 단계들은 아니지만, 내기 믿기로 유용한 단계들이라 본다. (1) 목회에 부름을 강조하라.(2) 목회를 위해 그들의 은사를 구별하도록 도우라. (3) 그들의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목회를 선택하도록 평신도를 돕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발견하라. (4) 주제에 대한 모든 가능한 자료들을 당신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보여 주라. 예를들어, 만약에 어떤이가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있다면 전도에 대해 그들이 알아야 될 좋은 책들이 많이 있다. 만약 어떤이가 도움의 은사를 가지고있다면 평신도 목회에 대한 바바라 쿤의 책, [평신도목회카달로그: The Whole Lay Ministry Catalog, 1979]"의 3장을 보여 줄수 도 있다. 또한 직업의 교리에 대해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책들도 있다.

그들의 훈련과정에서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 가장 유명한 책들 중의 하나가 엘턴트라블러의 [당신의 다른 사명: Your Other Vocation, 1952]이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흥미를 주는 또 다른 책은 오레이 헤른의 [세상에서의 크리스찬: A Christian Executive in s Secular World]이다. 그들의 훈련과정에서 평신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부록에 있는 지도자지침에, 나는 많은 것을 수록해놓았다).

(5) 만약 가능하다면 각 새로운 평신도사역자는 같은 목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더 경험있는 평신도에게 견습공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 종종 어떤 목회위치에 채워지기를 요청받는 평신도들은 지도감독과 안내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다. 더 경험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함께있으며 지도해주는 것은 이런 평신도목회자에게 더 열매를 맺게해 준다. 간단히 말해 평신도목회는 실지교수와 지도감독(demonstration and supervision)이 필요하다.

감리교 초기 감독 프랜시스 아슈베리 (Pioneer Bishop Francis Asbury)는 미국에서 감리교의 시작시절 5,000명의 평신도 설교자를 훈련시켰다고 했다. 한번은 그에게 어떻게 평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켰냐고 누군가가 물었다. 그는 이렇게 응답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 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말 위에 올라타서 그를 뒤에 태우고 지방을 수십차례 왕복하면서 보여주었다.8)

(6) 지원그룹 또는 목회팀(support groups or ministry modules)들을 구성하라. “module”라는 용어는 데이빗 메인스가 쓴 [Full Circle]이라는 책에서 빌려온 용어이다. 모듈러 라는 것은 단순히 비슷한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인 사람들의 그룹이다.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에는 두가지 기술이 있다. 하나는 “일시적인 버스”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흥미로 모인 이 그룹은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 단기간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다. 그들은 사실 서로에게 이방인으로 존재한다. 내가 말하는 두 번째 테크닉은 ‘가족’ 이론이다. 이것은 일단의 그룹에게 서로가 아주 친숙해지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시적인 버스(transient bus)”이론에서, 사람들이 단지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은 그들은 정해진 짧은 기간동안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가

족이론은 사람들을 등글게 서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이런 이론들은 피체트(W. H. Fitchett)의 “웨슬레와

평신도목회자사역보고서 NO. _____		
평목. _____ 목양지 _____ 주간일자 _____ 목표: “2/6” 예____ 아니오____		
가정방문	전화	병원 또는 “일대일” 접촉
1 _____	_____	_____
2 _____	_____	_____
3 _____	_____	_____
* 평신도목회담당자에게 주세요.		

그의 시대(Wesley and His Century)”에서 발췌한 것이다.10)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 우리가 평신도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들이 자신들을 더 큰 조직의 일부로 보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 보다 더 큰 것 뿐 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 자신을 오래 지속되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운동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목회에 있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들과 직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목회의 기쁨을 나누어야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은 또한

목회에서 갖게 된 상처들에 대해서도 나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시적인 버스” 이론은 더 쉽다. 이 방법에서 사람들은 단지 그들 자신이 방안에 모여 훈련을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연구(the student)가 아니라 시행되는 내용(the content)이다. 그 방법은 대개 장기적인 결과들(longterm results)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평신도목회 훈련의 성공은 훈련받은 평신도와 훈련을 하는 사람들(목사) 사이에 가까운 결합을 만드는 만큼에 달려있다. 영국에서 감리교의 초기 영향력은 소그룹모임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18세기 존 웨슬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21세기 우리에게도 필수적이다.

(7) 책임의 분명한 선을 수립해야한다. 구비시키는 자가 평신도의 목회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목회에서 평신도를 성공적으로 격려하려면 일종의 평가양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몇 년 전에 나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매주 제출할 수 있는 목회보고서를 개발했다. 그 카드에 평신도목회자들은 그 주간에 몇 번의 가정방문과 또 전화통화를 몇번 했는가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방문한 병원심방도 보고하고 또 다른 평목의 활동도 알려주게 된다. 거기에는 그들이 사역하면서 만난 어려움들도 기록하게 되어있다. 보고서의 목적은 사역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전반의 효과성을 평가해보는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목회 보고서는 구비시키는 자와 구비 되는 자 사이에 책임들을 확실히 해주는 많은 방법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훈련에서 이런 모든 것이 강조될 때에, 목표를 눈앞에 보게 되는 것이다. 평신도들이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가! 여러분은 준비되어있다. 기억하시라 엠4장을. 평신도목회의 목적은 우리에게 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전부이다. 그것이 역시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을 압니다.

토론 질문들

1. 목사 반대운동으로서 평신도목회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2. 알맞은 평신도훈련 프로그램에서 다섯가지 뚜렷한 단계들은 무엇인가?
3. 제3부 “평신도목회 훈련에 대한 장애물 극복하기”를 토론할 때, 당신의 그룹에서 목사와 평신도대표를 선발하라. 토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요약하라.
4. 평신도훈련에서 “일시적인 버스”이론과 가족이론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5. 평신도사역자의 훈련에서 모델링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6. 평신도사역의 훈련에서 책임은 어떤가?

제 6 장

사역으로 파송하라

사역은 별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그의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세상 속으로의 선교에 참여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개개인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자신들보다 훨씬 뭔가 더 큰- 예수님의 영원한 교회, 살아계신 주님의 -멤버들로서 사역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라오스(하나님의 백성)*로서 목회에 파송될 때, 교회에 관련되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함께 보내진다.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멤버들은 우리의 사역에 엄청난 관심을 갖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을 마쳤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지지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목회에 파송 되는 것이다.

I. 세상 속으로 파송

우리가 사역 속으로 파송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사역의 모델인 예수님 자신도 사역 속으로 파송되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의 기도 속에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세상 속으로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역으로 보냈다: “당신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요17:18). 또 다른 경우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20:21).

초대교회의 성장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보내졌다. 예를 들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행11:21-22).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의해 파송받았다(행13:2-3).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의해 파송된 것처럼 당신과 나도 똑같이 파송되었다. 우리는 교회에 의해 파송되며 사역속으로 파송된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측면에서 우리의 사역을 인식해야한다. 인류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아버지

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보내진 같은 방법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보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역에 보내진다는 것은 부름 받았고, 은사 받았고, 그리고 훈련받은 평신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임무를 함으로서, 우리는 보내는 편(sending party)의 대표자들로서 기능한다. 우리는 교회의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대표자들인 것이다.

부름을 받았다는(being called)것과 보냄을 받는(being sent)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찰스레이크(Charles Lake)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두 가지 다른 작용이다. 신약성서 속에 시종 일관적으로 사용된 “부름”이라는 단어는 “소환한 그 사람을 향해 부름 받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희랍어로부터 왔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3중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었다: 구원으로 부름, 제자로 부름, 그리고 봉사에도 부름. “보냄”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으로서 파송되는 것인데 자격을 주어, 보내는 사람의 대표로서 행동하도록 하는 위임을 받고, 특정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성서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름은 그의 은혜에 의해서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not to go somewhere), 어떤 사람이 되는 것(to be someone)이다. 우리의 방향이 지질학적인 위치로서 알려져 있는 그의 파송 안에 있는 것이다.....그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 그 자신에게로 불렀다. 그것이 바로 성서적인 원리이다.1)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세상을 재주장 하려고 세상속으로 보내졌다. 크리스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내진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laos)*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이다. 헨드릭

크레머(Hendrick Kraemer)는 이렇게 말했다: “평신도신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한스 웨버(Hans-Ruedi Weber)만큼 애기한 사람이 없을 텐데, 그는 모든 크리스찬은 두가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에까지 대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그리스도로부터 세상까지 대화가 필요하다. 개심이후에 우리는 교회의 세계속에 너무 몰입되어 세상의 세계속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오늘날 기독교교회에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은 내적으로 성장(ingrown)하여, 그 자체와 그것의 필요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존재 속에 요청된 [목적]을 기억하기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평신도로서 당신은 우리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독특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결코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기독교 평신도는 대부분의 목사들을 거부하는 세상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말로 목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에서 세상에 접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신에게 분명하다. 당신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동료로서 당신의 친구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목사들은 종종 반 성도들(semi saints)처럼 보여지거나, 또는 적어도 우리는 받침(꽃병의)이나 축받이로 간주되기도 한다. 우리는 올라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소외된 그룹으로서 간주된다. 평신도 사역자들로서 당신은 그런 장애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평신도 목회는 단지 개인이 그 목회에 동참되는 것 보다 뭔가 더 큰 것의 부분으로서 보여질 때 더 효과적이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잘 설명하였다: 우리는 모두 몸의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세포들처럼 기능한다. 교회의 성서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는 평신도 목회(Lay Ministry)는 그 자체를 몸의 한 부분으로서 본다. 평신도목회는 지원그룹이 각 평신도 사역자 주위에 세워질 때에 성공할 것이다. 파송그룹의 목적은 단지 보낼 뿐만 아니라 평신도사역자를 격려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 그룹을 형성하느냐, 어떻게 기능하느냐는 그것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기능하느냐보다는 덜 중요하다.

확실히 지원그룹은 많은 방법에서 구성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한 가지는 10-12명의 그룹을 만드는 것인데 모두 다 같은 영적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이 종종 만날 때 마다 그들은 그런 특별한 은사의 활용을 토론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은 다른 사역들을 가지고 있을테지만, 그들은 확실히 공동된 목표를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의 최상을 위해 그들의 은사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 지원그룹을 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교사는 교회 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주일학교교사가 단지 이런 사역에서 기능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자신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교사가 몇몇의 다른 교사들과 좀더 자주 나누는 시간을 갖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한다면 그 주일학교 교사는 얼마나 더 효율적이겠는가.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은 그들의 사역들을 평가하기 위해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모일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어떤 어려움도 토론할 수 있다. 그들은 염려를 나눌수도 있다. 그들은 그 달에 사역을 하면서 즐겁고 신났던 일들로 함께 웃을수가있다. 그들은 특정한 사역의 염려들에 대해 기도하며 함께 울 수도 있다. 함께 모이는 것의 목적은 평신도 사역자들로 하여금 그들은 그룹의 한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들은 신나는 팀에서 봉사한다. 목사들로서 우리는 종종 그룹으로 모여서 우리의 공통된 관심/염려들을 나눈다. 그런것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격려가 되는 시간들이다. 왜 우리는 우리의 평신도사역자 들에 대해 덜 기대해야 하는가?

II. 우선권을 수립하기

목사들로서 우리는 평신도들이 어떤 사역들에 파송되기 이전에 우선권을 세우도록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모두는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기 쉽다. 단지 우선권을 수립하고 그런 우선권들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만이 우리 자신을 알맞은 균형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우리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삶을 넘어서서 목회하는 평신도의 첫 번째 우선권은 가족이 되어야 한다. 목사들로서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가족들이 첫 번째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는 있다. 그런데 비극은 그렇게는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많은 목사들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성도에게 주어서 그 자신의 가족들은 아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듣게 된다. 목사들로서 우리 모두는 이점에서 유혹받기 쉽다. 문제는 간단하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사랑하며 우리의 회중을 목회하는 것을 즐긴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깊이 느끼고 그런 필요들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역의 한 가지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한 회중을 잊게 된다. 그 회중은 우리의 배우자로 시작하여 우리의 자녀까지이다. 그리고 사역에 동참한 평신도들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평신도 사역자들은 독신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이 없기에 가족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 진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이다. 확실히 어떤 독신자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그들의 사역들에 더 시간을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한 우리들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독신자들은 비록 배우자와 자녀들이 없긴 하지만 사실 그들도 자신의 가족타입(family-type)의 관계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성들은 마치 그들이 가족인 것처럼 기능한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을 함유한다. 독신자들은 이런 관계성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신으로서 자신의 복지안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신자들을 사역에 동참되도록 격려할 때에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그들의 가족으로서 기능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성을 개발시키는데 시간을 할애하라고 부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우선권은 직업, 더 정확히 말해서 천직이다. 천직의 정의는 단순히 어떤 이의 직업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행동이다. 어떤 이의 직업은 단지 그의 머리위에 있는 지붕과 테이블의 음식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인 것이다. 만약 그것이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우리의 우선권들 중 상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평신도들은 결코 그들의 교회사역이 그들의 천직적인 사명에 대치된다고 느껴서는 결

코 안 된다.

다른 우선권은 회복 또는 레크레이션이다. 우리 모두는 레크레이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은 취미나 활동, 운동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다른 것은 독서일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후에 낮잠일수도.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 모두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회복을 위한 시간이 요구된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적 감정적 풍요로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우선권은 교회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목사로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정이 정상적이고 천직적인 소명감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가 신체적, 감정적 건강을 위한 지침을 귀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즐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목사로서 우리가 그들의 삶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첫째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에 사역을 위한 초청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그들의 삶의 다른 헌신들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들을 모집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시도한다]는 것을 그들이 예상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 대신에 우리가 교회일 만이 그들 삶에서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때 마음을 연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높은 우선권으로 갈등을 겪는 목회 속으로 그들을 결코 밀어 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들로서 우리는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역에 동참되도록 요청할 때 "No" 라고 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궁색한 이유로 "No"를 표현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과거에 가졌던 경험에서 안 좋은 것이 있었기에 "No"라고 대답한다. 오늘날 많은 평신도들이 목회에 동참되기를 거부하는데 왜냐하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가 요구되는 목회에 임무 부여 되는, 즉 잘못 맞춰진 것(mismatched)이다. 그들은 좌절하면서 그만둔다. 그들의 은사가 맞는 목회에 그들이 놓여졌다면 얼마나 성취가 있

있을 것인가?

그러나 평신도가 목회에 동참하기 거절하는 주요이유는 과거에 그들이 맞지 않는 사역에 대해 “No”라고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그들은 곧 지나친 짐을 지게된 것이다. 엄청난 좌절 후에 종종 그들의 가족들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래서 그들은 소진된 평신도들의 부류에 속하게 된다. 이런 좌절은 그들의 삶에서 알맞은 우선권을 유지하는 것을 배우기에 방해가 되어왔을 수도 있다

III. 소진을 막는 것

어떻게 우리는 소진을 막을수 있는가? 목사로서 우리는 평신도들이 목회에서 소진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어떤 단계들을 따를수 있는 것 같다. 목사로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1) 평신도목회 스케줄에 안식년을 포함하라. 안식년은 7년째인데 사역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다. 평신도 목회는 매7년마다 쉬어야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는 회복과 레크레이션을 포함시키는 스케줄을 만들어야한다는 뜻과 목사들로서 우리가 목회로부터 휴가가 필요한 것 처럼 같은 기회를 평신도도 가져야한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해야 한다.

몇 년 전에 평신도 목회자로 훈련시킬 때 우리는 소위 22/2 계획을 가졌다. 그 뜻은 22개월 일하고 두달 쉰다는 것이다. 내가 발견하기로 쉬지 않고 22개월 일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11/1 계획으로 바꾸었다. 물론 당신이 예상하듯이 11개월 일하고 한달 쉬도록 했다. 물론 22/2 계획이 11/1 계획보다 더 나았다. 그러나 우리는 발견하기를 평신도 목회자들은 2년마다 한번 이상 목회로부터 쉬어야한다는 것이다

(2) 각 평신도에게 그의 목회의 열매를 검토해보는 평가시간을 가져야한다. 이 목회에 대해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해야한다. 평신도 목회

활동에서 갑자기 생겨지는 많은 불안감은 만약 목사들로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그들이 느끼는 것을 나눈다면 막아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역들은 날자를 줄이거나 끝나는 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평신도는 만약 그 일을 함으로 그들의 남은 삶에 그 직책에 묶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특별한 사역에 더 빨리 뛰어들 것이다. 한 여집사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 일을 하는데 겁이나요.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요; 나는 단지 다음 세기를 위해 그것을 하기 원하지는 않아요. 내 경험에 의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뭔가에 자원하면 거기에서 결코 빠져 나올 수 없어요.” 많은 평신도목회 직책이 만기일을 가짐으로서 그들 자신이 더 잘 투자할 수 있다.

(3) 가족에 대한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4) 직업적인 사역을 강조하라.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업적인 헌신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도록 하라. 목사들로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들 중의 하나는 그들의 일터/직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5) 개인적인 회복과 레크레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6)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라. (7) 평신도들에게 언제 어떻게 “No” 를 말하는지를 가르치라. 어떤 평신도들은 그들이 당신에게 “No”하는 방법을 당신이 가르치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보호 받은 것에 대해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들은 대단히 흥미로워할 것이다.

(8) 필요가 소명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라. 이것은 비교적 위의 진술에 관련되어있다. 목회에 대한 모든 열린 문이 평신도에 대한 소환이 아니다. (9) 평신도들로 하여금 순수한 확신(아마 알맞은 사역에 동참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는)과 잘못된 죄의식(어떤이로 하여금 지나치게 헌신하도록 할 수 있는) 사이에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우라 (10)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역에서 보조를 조절하도록 도우라. 오래가는 것을 생각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어떤 평신도들은 마치 지난밤에 구조되어야했던 세상처럼 그들의 사역들을 공격한다. 평신도들은 그들 자신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쉬는 것이 좋다. (11) 모든 사역은 큰일(big business)이라는 것을 확증하라.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다. 목사들이여, 우리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것이

정말로 큰일(big business)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에 뿐만 아니라 목사의 목적에서도.

IV.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파송하기

목회를 위해 보냄을 받는 것이 나는 세상을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웃집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목회에 관계없이— 그것이 수천 명에게 설교하든지 또는 지하실의 주일학교 방을 청소하든지— 우리는 교회에 의해 보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찬 공동체의 지지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도 포함한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사역기회들로 옮겨놓을 때에 파송 예배를 통해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때는 몇 명의 동료 신자들이 함께 모여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특별한 평신도목회 기회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도 있다.

그들의 성도중의 한사람을 목회로 보낼 때에 그리스찬들이 축하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제 두가지 그런 예배를 살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것은 평신도목회 계약이다. 계약은 그리스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계약은 약속 또는 맡겨짐이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우리자신에게 서약하는 것이다. 계약은 사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즐거움과 참여의 표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래의 계약은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예배에서 사용되기 위해 씌여 졌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소그룹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계약의 목적은 세상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기능하기 위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중예배에서 계약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신학적인 배경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공공적인 예식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어수선 할 수도있다. 계약예배는 확실히 그것의 내용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몸으로서 함께 진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매우 가치가있다. 그것이 바로 계약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어떤 것에 대한 확증이다. 계약이 자신을 검토하는 시간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나의 기도이다. 아마도 그것은 바꾸어서 사용할 수 도 있다.

내가 알기로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조용히 이 책을 읽을 것이다. 당신은 계약이 형식적인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개인적인 영적 갱신과 서약을 위한 시간으로서 당신에게 유용할 수 있다.

평신도 목회 약속

L = 인도자 C = 회중

L : 하나님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C : 우리는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L : 우리는 산돌 입니다.

C :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L :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함께 선택된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입니다.

C : 예, 하나님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제사장들입니다.

L : 비록 우리가 무가치하지만,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C :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제사장이라 불리는 것은 얼마나 황송한지요.

L : 우리는 찬양과 봉사의 희생과 사랑의 행동을 드립니다.

C : 우리는 제물로서 우리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목회에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L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왼쪽편: 예 우리는 당신의 교회의 부분입니다.

오른쪽편: 그리고 당신은 머리입니다.

L : 성육신은 계속됩니다.

왼쪽편: 예, 그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됩니다.

오른쪽편: 그래서 우리는 삶을 터치합니다.

L :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님을 압니다.

C : 그러나 사실 당신은 우리를 통해서 터치합니다.

왼쪽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명예롭습니다.

오른편: 예, 명예롭지만 겸손합니다.

L :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C : 그리고 목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즐깁니다.

L : 우리는 크리스찬교재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C : 그리고 목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즐깁니다.

L : 우리는 풍성한 유산의 부분입니다.

C : 사역자들의 오랜 혈통입니다.

L :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C : 그리고 봉사에 부름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엡4:11): “어떤이
는.....”

L : 우리는 구비자들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C : 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우리에게 사역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L : 우리의 구비자들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C : 왜냐하면 우리의 목회에 대해 그들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L :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사역자들입니다.

왼쪽편: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역자들입니다.

오른편: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L :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은사받았습니다.

C : 예, 그분은 우리의 목회를 위해 은사를 주었습니다.

L : 우리는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C :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함께 그리고 당신에게 사역하기 위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C : 우리는 서로에게서 은사를 봅니다.

왼쪽 : 우리는 당신의 은사를 확증합니다.

오른쪽: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확증합니다.

L :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C : 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우리사역들이 그것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바랍니다.

L : 우리의 은사는 중요합니다.

C : 그러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L :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출범합니다.

C :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훈련되었습니다.

L : 그것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C : 그리고 그 사명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L :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서로를 주셨습니다.

C : 우리는 정말로 서로 필요로 합니다

L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역합니다.

C : 우리는 정말로 서로 필요로 합니다.

L :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왼쪽편: 우리는 우리의 사역들을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른편: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들을 위해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같이 노래하라: “사랑의 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되었습니다.

L : 우리는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왼쪽 : 예

L : 우리는 사역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른편: 예

L : 우리는 사역을 위해 은사받았습니다.

왼쪽: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L : 우리는 사역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킬 구비자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오른편: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L : 우리는 사역을 위해 우리를 보낼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C :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보내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회에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L : 그래서,

L과C: 우리는 우리의 목회를 성취하려고 시작하는 오늘 계약합니다.

왼쪽: 당신이 봉사한 것처럼 봉사합니다.

오른쪽: 당신이 준 것처럼 줄 것입니다

왼쪽: 당신이 한 것처럼 터치합니다

오른쪽: 당신이 아픈 것처럼 아픕니다

왼쪽: 우리의 목회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른쪽: 예, 그리고 우리의 목회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L : 우리는 당신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C : 그리고 우리의 완성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L과C: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또는 성찬식을 할 수도 있다)

파송 예배의 목적은 용어가 말해주듯이 평신도들을 특수한 사역들에 파송하거나 임명한다는 것이다. 파송예배는 당신교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행사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의미있는 예배일 것이다. 그것은 평신도들이 자신을 사역에 던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검토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동시에 회중은 그들의 지원, 그들의 사랑, 그리고 이런 평신도가 목회에 동참하는 것을 위해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지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다음은 평신도목회 파송예배이다. 당신의 교회에 맞게끔 가감할 수 있다. 이런 파송예배의 내용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파송되는 지에 있어서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도록 사용되기 바란다.

평신도목회 파송 예배

목사는 다음을 설명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목회는 여러분에게 많은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엄청난 도전들의 오솔길 속으로 가져올지도 모른다. 가끔 목회는 두통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심각하게 주의 깊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있는 모든 것을 당신은 그분께 드립니다.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당신은 당신자신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에 당신 자신을 헌신함에 있는데 이제 당신은 당신의 형제 자매 앞에서 그 헌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은 당신이 목회함에 있어서 당신을 격려하는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봉사에 당신 자신을 헌신하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자신들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목회 지원자들에 대한 질문:

1. 당신은 목회에 부름받았다고 믿습니까?

(답: “예, 믿습니다.”)

2.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것들은 그 분을 위해 봉사에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답: “예, 압니다”)

3. 당신은 당신의 봉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교훈과 훈련에 당신 자신을 투자하였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4. 당신은 이제 성도들의 이런 교제에 의해 당신의 목회에 보냄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5. 당신은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당신의 동료들에 대한 봉사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답: “예, 그렇습니다”)

회중에게 질문:

여러분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분들을 지원해주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말과 실천에서 그들을 격려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대답해주세요. (답: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신의기도: (지원자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와서 우리자신을 당신의 봉사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목회가 모범임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시작하고 사역을 우리가 계속 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는 표시로서, 그리고 당

신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오늘 우리의 예식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당신에게 이런 사역자들 - 이런 당신의 백성을 -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사역이 꽃피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원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여러분을 부름 받은 사역에 파송 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을 지지하실 것입니다.

Note - "당신이 부름받은" 이라는 말 대신에 당신은 특수한 사역을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주일학교 가르침의 목회"라고 또는 "가정방문의 목회"라고 말할 수 도 있다. 만약 이 봉사가 직업적인 부름과 연결시키면서 사용된다면 "치과의 사역"에 또는 "목공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평신도들이여, 당신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아마도 여러분의 사역을 계속함에 있어서 "축하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읽어온 여러분은 수년동안 많은 사역들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목사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흥분되었던 것처럼 평신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비시키는 자로서의 기능에 대해 저도 상당히 흥분되고 있습니다.

-끝

Appendix A

From Discovering My Gift to Finding My Ministry

Having discovered your gift(s), let's look at some options of ministry. The following list comes from Tim Blanchard's book *A Practical Guide to Finding Your Spiritual Gifts*. The headings are the 13 gifts listed by Blanchard. Below each gift are some of his suggested ministries.

A. *Preaching*

1. boards and commissions
2. Bible teacher migrant worker, prisons, hospitals, rest homes, military
3. pastor
4. missionary church planting, evangelism
5. gospel teams evangelistic services, speaker

B. *Teaching*

1. boards and commissions elder, deacon, Christian education
2. church services toddler church, beginner church, primary church
3. home visitation
4. young people Boy Scouts, Girl Scouts
5. outreach gospel team, small-group home Bible study leader
6. Sunday School superintendent, assistant superintendent, department coordinator, children's teacher, youth teacher, adult teacher, substitute teacher
7. Vacation Bible School committee, teacher, assistant
8. missionary-teacher
9.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teacher

C. *Knowledge*

1. boards and commissions elder, deacon, Christian education
 2. young people Boy Scouts, Girl Scouts
 3. outreach small-group home Bible study discussion leader
 4. Sunday School superintendent, assistant superintendent, youth teacher, adult teacher
 5. Vacation Bible School teacher
 6. missionary translation, interpretation-commentaries
 7. research Sunday School curriculum, Bible school curriculum
-

D. *Wisdom*

1. boards and commissions elder, deacon, trustee, school commission, building commission
 2. librarian
 3. outreach home visitation, small-group home Bible study leader, gospel teams
 4. young people youth sponsors, Boy Scouts, Girl Scouts, teen week speaker
 5. counseling vocational, minority group program, gang ministries, marriage, homosexuals, divorced, released prisoners, windows and widowers
 6. missionary planning, church planting, school instruction
 7. Vacation Bible School director
-

E. *Exhortation*

1. boards and Christian education
2. church services toddler, beginner, primary, adult, vocal music, usher, greeter

3. visitation sick, newcomers, shut-ins, canvassing, members, prison, hospital, rest homes, telephone
 4. young people Boy Scouts, Girl Scouts
 5. outreach gospel teams
 6. counselor emotionally disturbed, divorced, premarital, gangs, homosexuals, juvenile offenders, marital conflicts, narcotic addicts, potential suicides, released prison offenders, runaway youths, school dropouts, widows and widowers, camp
 7. Vacation Bible School teacher
-

F. *Faith*

1. boards and commission elder, deacon, trustee, nominating committee, missionary commission
 2. outreach home visitation, gospel teams, evangelism
 3. missionary church planting
-

G. *Discernment of Spirits*

1. boards and commissions elder, deacon, membership commission, Christian education commission, nominating committee, missionary commission, school commission
 2. personnel recruitment
 3. outreach home visitation
 4. young people youth sponsors
 5. counselors church, camp, juvenile offenders, marital conflicts, divorced, neglected children, neglectful parents, runaway youth, potential suicide, school dropouts
 6. librarian
 7. Sunday School adult
-

H. *Helps*

1. boards and commissions deaconess, social commission, trustee,
finance commission, property commission, school
commission, building commission
2. officers treasurer, financial secretary, clerk
3. church services usher, greeter
4. librarian
5. nursery coordinator, assistant
6. missionary local missionary society leader
7. men's or women's fellowship committee
8. outreach gospel teams—transportation, Bible school host,
home Bible study host
9. Sunday School secretary, departmental secretary
10. music chaancel choir director, youth choir director,
children's choir director, song leader, choir member, soloist, duet,
trio, quartet, pianist(accompanist), organist, instrumentalist,
orchestra leader, music committee
11. bus driver
12. banquet worker
13. office help type, draw, file, assemble, reproduce materials,
mailings, telephoning, record information, key punching
14. hospitality meals, lodging
15. transportation shut—ins, youth activities, church services
16. cook
17. nurse
18. kitchen help
19. athletic teams basketball ,baseball/softball,
volleyball, swimming, football, other _____
20. maintenance landscaping, carpentry, painting, electrical,
plumbing, cleaning
21. artistic work
22. financial
 accounting, bookkeeping, money counting, computer

- 23.audiovisual videotaping, projectionist, filing, printer/posters,
television, photographer, artist, tape recorder
- 24.Sunday School hear memory work, secretary
- 25.helper deaf, blind, narcotic addicts, alcoholics, mentally ill,
migrant workers, remedial reading nursing,
underprivileged, mentally retarded
- 26.library bookbinding
- 27.radio booth sound engineer
- 28.drama—acting

I. *Serving*

- 1. officers financial secretary, treasurer
- 2. librarian
- 3. greeter
- 4. building committee
- 5. nursery coordinator
- 6. young people
Boy Scouts, Girl Scouts
- 7. local missionary society
- 8. men's or women's fellowship
- 9. music song leader, soloist, instrumentalist
- 10. nurse
- 11. kitchen help
- 12. handy person
- 13. carpenter
- 14. church drama productions
- 15. financial
- 16. accounting
- 17. audio visual videotaping, projectionist, television, photographer
- 18. helper narcotic addicts, alcoholics, migrant workers,
nursing, underprivileged

19. music chancel choir director, youth choir director, children's choir director, song leader, choir member, soloist, duet, trio, quartet, pianist(accompanist, soloist), organist, instrumentalist, orchestra leader, music committee
 20. office help type, telephone
 21. hospitality meals, lodging
-

J. *Administration*

1. boards and commissions deacon, trustee deaconess, Christian education, missionary, school, property, finance, membership, evangelistic, church service, social, building, planning
 2. officers financial secretary, treasurer, head usher
 3. nursery coordinator
 4. young people
 5. local missionary society leader
 6. men's or women's fellowship leader
 7. Sunday School
 8. librarian cataloging
 9.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10. camp director, assistant director, administrative staff
 11. radio booth operator
 12. audio visual room coordinator
 13. drama directing
 14. coffeehouse ministry
 15. Vacation Bible School director, committee, assistant
 16. teen week director
-

K. *Ruling*

1. boards and commissions school board, deacon, trustee, property, finance, building, planning

2. church services greeter, head usher
 3. church moderator vice moderator
 4. Vacation Bible School director
 5. teen week director
 6. Sunday School superintendent, department coordinator
 7. men's fellowship leader
 8. women's fellowship leader
 9. local missionary society leader
 10. camp director
 11. class officers
-

L. *Mercy*

1. boards and commissions deacon, deaconess
 2. church services usher, greeter
 3. cassette ministry to shut-ins
 4. hospitality meals, lodging
 5. visitation sick, dying, shut-ins, hospitals, rest homes, telephone, newcomers, bereaved
 6. missions committee, missionary circles, local gospel mission, correspondent with missionaries, furlough assistant
 7. helper alcoholics, mentally ill, remedial reading nursing, blind, deaf, gangs, hungry and underprivileged, mentally retarded, migrant workers, narcotic addict, released prison offenders
-

M. *Giving*

1. boards and commissions trustee, missionary commission, fund-raising commission, uilding commission, school commissio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
2. food and money to help poor

3. hospitality meals, lodging

4.sponsor and underwrite special missionary projects

Appendix B

Definitions of Gifts

PROPHECY;

The gift of prophecy is the ability to comprehend a message from God and transmit it to a particular audience with clarity and authority, through a communication channel such as preaching or writing.

HELPING;

The gift of helps is the ability to be of assistance to some other person in the performance of their particular assignment in the church.

TEACHING

The gift of teaching is the capacity to present information or concepts in such a way that people can remember the information and understand the concepts; in other words, they learn.

ENCOURAGING;

The gift of encouraging is the ability to minister to others by word and deed in such a way that they receive comfort, counsel, and courage for their tasks.

GIVING;

The gift of giving includes both the ability to earn material resources and the willingness to let these resources be used for maximum benefit to the kingdom of God.

LEADERSHIP;

Leadership is the ability to "be out in front" of a group, setting goals in accord with God's will and enlisting the harmonious efforts

of the group to achieve these goals.

MERCY;

The gift of mercy is the ability to sense the feelings of those who hurt, whether they are Christian or non-Christian, and, in a cheerful and effective manner, to help them cope with their problems.

PASTOR;

The gift of pastor is the capacity to oversee and care for the spiritual wholeness of a group of believers.

APOSTLE;

The gift of apostle is the ability to assume and exercise leadership over churches with a special effectiveness in increasing the number of churches or in introducing the church in to new areas or to new cultures.

MISSIONARY;

The gift of missionary is the ability to minister effectively in a second culture.

EVANGELIST;

The gift of evangelist is the ability to share the gospel with unbelievers in such a way that they accept Christ and become believers. It includes a spiritual sensitivity to discern the readiness of persons to respond and may be exercised by both laypersons and clergy in individual or group encounters.

WORD OF WISDOM;

The word of wisdom is a spiritual gift that involves the ability to take knowledge and make appropriate applications to problem

situations. It is the ability to make proper choices in difficult situations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WORD OF KNOWLEDGE;

The gift of knowledge is the ability to discover, analyze, and remember information important to the growth and well-being of the Body.

DISCERNMENT OF SPIRITS;

The gift of discernment is the gift of being 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working of the human spirit and the divine Spirit or between the works of God and the works of Satan; the ability to recognize false teaching or to perceive divine truth in confusing situations; a God-guided instinct to know right from wrong.

HEALING;

The gift of healing is the capacity whereby some individuals are uniquely used of God at certain times to be the intermediary through whom God's healing power is applied to another person's physical or emotional need.

MIRACLES;

The gift of miracles is the ability to exercise faith in such a way that others perceive that what has happened can have no other explanation than the intervention of God into the natural order of events.

FAITH;

Faith as a gift of the Holy Spirit refers to an extraordinary ability to discern the will and purpose of God for the future of His work and to act accordingly.

SERVING;

The gift of serving is the capacity to identify and perform countless small tasks that need to be done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Body of Christ. While the gift of helps is centered on assisting another person to do their assigned task, the gift of service is centered on doing those small necessary to the institution or a group.

LANGUAGES;

The gift of languages is that of an increased ability to learn and comprehend a second language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ng the gospel.

INTERPRETATION OF LANGUAGES;

The gift of interpretation of languages is a heightening of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gospel in one language and express it without distortion in another language.

Taken from: *Strategy Manual for Finding Your Ministry*, by Raymond Hum.

Reference Notes

PREFACE

1. Howard Butt, *At the Edge of Hope* (New York: Seabury Press, 1978), 78–79.
2. Carlyle Marney, *Priests to Each Other*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74), 9.
3. Elton Trueblood, *Your Other Vocation*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2), 29.
4. Thomas Gillespie, "The Laity in Biblical Perspective," *The New Laity*, ed. Ralph D. Bucy (Waco, Tex.: Word Books, 1978), 32.

CHAPTER 1

1. Kenneth Chafin, *Help! I'm a Layman* (Waco, Tex.: Word Books, 1966), 1.
2. Oscar Feucht, *Everyone a Minister*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4), 37.
3. Gillespie, "The Laity in Biblical Perspective," 17.
4. Ibid., 20.
5. Hans Kung, *The Church* (Garden City, N. Y.: Image Books, 1967), 478.
6. Feucht, *Everyone a Minister*, 40.
7. Butt, *At the Edge of Hope*, 79.
8. Francis O. Ayers, *The Ministry of the La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25.

CHAPTER 2

1. Hendrik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137.
2. Ibid., 48–49.

3. Richard Harrington, "*The Ministry of All Christians*"(Ph. D. diss., Drew University, 1979), 19.
4. William Barclay, *Acts*(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1.
5. Ibid., 2.
6. Ibid.
7. Donald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0), 16.
8. Clifford Wright, *Laymen Are Ministers* (Melbourne, Australia: Methodist Federal Board of Education, *Methodist Church of Australia*, 1961), 12–13.
9.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ashvill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68), 106.
10. Hans-Ruediger Weber, "*Ministries of the Priestly People*," *Laity*, No. 9(July, 1960): 19–20.
11. Howard Grimes, "*The Vocation of the Laity*," *Perkins School of Theology Journal* 13, No. 1(Fall, 1959): 1.
12. Albert C. Outler, "*The Pastoral Office*," *Perkins School of Theology Journal* 16, No. 1(Fall, 1962): 5.
13. Trueblood, *Your Other Vocation*, 58.
14. Ibid., 62.
15. Alden Kelley, *The People of God*(Greenwich, Conn.:Seabury Press, 1962), 56.
16. Trueblood, *Your Other Vocation*, 63.
17. Ibid., 66
18. Gillespie, "*The Laity in Biblical Perspective*," 24.
19. Second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54.

CHAPTER 3

1. Trueblood, *Your Other Vocation*, 43.
2. Kung, *The Church*, 492.
3. Ibid., 493.

4. Christopher Brooke, *The Layman in Christian History*, eds. Stephen Charles Neill and Hans-Ruedi Web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3), 111.
5. Ignatius, cited in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by Philip Schaff (Philadelphia: John C. Winston Co., 1933), 59.
6. Kung, *The Church*, 483.
7. Van A. Harvey, *A Handbook of Theological Terms* (New York: Macmillan Co., 1969), 250.
8. Gordon Rupp, "The Age of the Reformation," *History*, 142, citing William Tyndale, "Wicked Mammon," *Doctrinal Treatises* (Parker Soc. ed.), 101–3.
9. Franz Hildebrandt, *Christianity According to the Wesleys* (London: Epworth Press, 1956), 48.
10. Stephen Charles Neill, "Britain," *The Layman in Christian History*, 207.
11. For a more extensive discussion of Wesley's use of the laity, see James L. Garlow, "John Wesley's *Understanding of the Laity as Demonstrated by His Use of the Lay Preachers*" (Ph.D. diss., Drew University, 1979).

CHAPTER 4

1. James F. Engel and H. Wilbert Norton, *What's Gone Wrong with the Har-ves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o., 1975), 140.
2. For a fuller discuss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gape, see Anders Nygren, *Agape and Ero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32).
3. A. T. Robertson and Alfred Plummer, *I Corinthians* (Edinburgh: T. and T. Clark, 1911), 285.
4. Ray Stedman, *Body Life* (Gendale, Calif.: Regal Books, 1972), 51–52.
5. Leslie B. Flynn, *Nineteen Gifts of the Spirit* (Wheaton, Ill.:

Victor Books, 1974), 22.

6. Raymond W. Hun, *Finding Your Ministry*(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79), 21.

7. Stedman, *Body Life*, 40–41.

8. Kenneth Kinghorn, *Gifts of the Spirit*(Nashville: Abingdon Press, 1976), 37.

9. David L. Hocking, *The World's Greatest Church*(Long Beach, Calif.: Sounds of Grace Ministries, 1976), 134–37.

CHARTER 5

1. A. W. Kist, "*Dynamics of Adult Education*," *Laity*, No. 23(July, 1967): 23.

2. Edwin Carl Linberg,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the Clergy as Enabler of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Ministry of the Laity*"(D.Min.diss., school of Theology at Claremont, Calif., 1975), 246–47.

3. Ibid.

4. These five words—association, impartation, demonstration, delegation, and supervision—are borrowed from the chapter titles of Rober Coleman's book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 1963).

5. Linberg, "*The Clergy as Enabler of the Laity*," 244–45.

6. Arnold B. Come, "*Lay Training in the U.S.A.*," *Laity*, No. 19(July, 1965): 15.

7. Tim Blanchard, *A Practical Guide to Finding Your Spiritual Gifts* (Wheaton, Ill.: Tyndale House Publishers, 1979).

8. Frederic Norwood, "*The Shaping of Methodist Ministry*," *Religion in Life* 45, No.3(Autumn, 1974): 350.

9. David Mains, *Full Circle*(Waco, Tex: Word Books, 1971).

10. W.H.Fitchett, *Wesley and His Century*(New York: Eaton and Mains, 1906), 219–20.

CHAPTER 6

1. Charles Lake, "*To Go or Not to Go?*" OMS Outreach, No. 2(1978): 13.
2.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127.
3. Hans_Rueof Weber, *Salty Christians* (New York: Seabury Press, 1963), 49.
4. For an excellent discussion of the advantages of "*Amateur Status*," see Trueblood, *Your Other Vocation*, 39–42.

“이 책이야말로 교회성도들을 위해 내가 보아온 가장 읽기 쉽고 가장 도움이 되는 지침서들중의 하나이다. 이 책에서, 갈로우 박사는 약간 신학적인 방법에서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하였지만,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다루고 있다.”

플로리다, 코랄리지 장로교회, 담임목사 제임스 케네디 박사

“목적이 인도하는 교회(a purpose-driven church)가 되려면, 당신은 목회를 위해 모든 성도를 움직여야(mobilize) 한다. 짐 갈로우의 실제적인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목표로 움직이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청중을 군인으로 바꾸어놓는 성서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세들백교회, 담임목사 릭웨렌 박사

“내 견해로, 미래에 있어 가장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은 목회를 실지로 평신도들에게 주는 교회들이 될 것이다. 그의 책에서 짐 갈로우는 이것이 교회에서 성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알라바마 몽고메리, 프레즈감리교회, 담임목사 존 에드마티슨

“목회가 함께 나누어 질 때 그리고 함께 나누는 곳에서 교회는 번영하고, 목회가 엘리트 직업적인 목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시행될 때에 교회는 죽는다. 오늘날 우리 세계속에서 예리한 교회들은 짐갈로우의 역작 [목회에서 동역자] 의 진리를 재발견하였다. .”

켄터키, 에즈베리신학교, 학장 데일 젤로웨이박사

“나는 이 책이 평신도에게는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목사에게는 교훈적이고 교화시키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짐 갈로우의 성서적 가르침들, 잘 쓰여진 글, 교육적인 도표, 그리고 실제현장에서 창조할 수 있는 예증을 제시하며 자원자와 직업적인 사역자들이 목회에서 순수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하이오, LPM총재, 멜빈스타인브런



저자 제임스 갈로우

Jim Garlow is the former Senior Pastor of Skyline Church located in La Mesa, California, a suburb of San Diego.[1] Garlow is often cited as an evangelical leader in the political arena, quoted on issues such as the 2012 Republican presidential primary.[2][3] He is a leader in the "pulpit freedom" movement, which insists that pastors should be free to carry out political advocacy from the pulpit in defiance of Internal Revenue Service regulations.

Explaining his position to the far right of evangelicals in America, Garlow has suggested that the term "evangelical" should be abandoned by religious conservatives in favor of the term "authentically biblical Christians". He questioned whether liberal evangelicals truly believe in the Bible. "I would question whether or not everyone believes the Bible in the way they may have at one point," he said. "Just look at how they're capitulating on the definition of marriage and their view of homosexuality. There's a lot of capitulation, a lot of Neville Chamberlain evangelicals out there." He suggested that religious conservatives may have to "abandon" the term "evangelical" altogether and "coin a new phrase" like "ABC, authentically biblical Christians.



서병채 (역자)

성결대학교 (B.A)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 (M.Div)

감리교신학대학원 (Th.M)

미국 Graduate Theological Foundation (Ph.D)

미국 Yale University (Divinity, postdoc., 2006)

영국 Oxford University (Wycliffe, postdoc., 2012)

영국 Cambridge University (ICE, 2018)

나가랜드 PACE신학교 총장 (2015-2020)

케냐 학교법인 Blue Nile Melvin 이사 (2021-)

케냐 멜빈대학교 총장 (2021-)

역/저서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

평신도목회의 극대화

목회에서 동역자

평신도목회에서 모빌라이제이션

뒷문을 다시열라

평신도목회의 개념과 신학

구비시키는 교회

평신도목회 실천론

Me to We

독특한 교회

Pastoral Care

창조적인 삶

미래교회와 패러다임